



X·Y·Z세대의 불편한 동거... ‘Z’ 열공하는 X·Y

스페셜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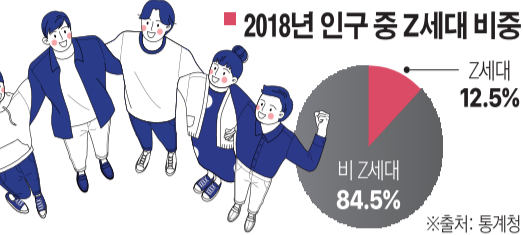
X세대로 불렸던 40대 초반 직장인 A 차장. 그는 요즘 ‘Z세대’에 대해 관련 책을 읽는 등 공부하느라 바쁘다. Z세대의 사회 진출이 시작됐는데, 도통 그들을 알 수 없는 탓이다. A 차장은 “내년에는 신입사원으로 Z세대 친구들이 더 많이 들어올 텐데, 그들을 먼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관련기사 3면

X세대와 Z세대 중간에 낀 Y세대는 샌드위치 신세다. 나름대로 신시대의 주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위아래로 모두 원활한 소통에 힘들다고 토로한다.

Z세대가 미래 소비의 주역이자 기업 문화를 바꾸는 젊은 집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마디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잠재력을 가진 세대다. 그런 Z세대가 내년 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에 쏟아져 나온다.

X·Y·Z세대 특징

	X세대	Y세대	Z세대
출생시기	1970~1980년	1981~1994년	1995년 이후 출생
특징	경제적 풍요 속에 각자의 개성을 표출	워라벨과 율로를 핵심 가치로 추구	수직적 관계 대신 수평적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소통 추구



미래소비 주역 ‘Z세대’·회사 중추 ‘X세대’·워라벨 추구 ‘Y세대’ Z세대 내년 본격 사회 진출...자유분방함 존중하면 난제 해결 가능

회사의 간부로 자리 잡고 있는 X세대와 입사 1~2년차의 Z세대, 그리고 그 중간인 Y세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기업 성장의 열쇠다.

X세대는 1970~1980년에 태어난 이들이다. 경제적 풍요 속에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Z세대는 1995년 이후 출생한 이들을 말한다. 수직적 관계 대신

수평적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소통을 추구한다. 회사보다 사생활이 먼저이며, 현재의 행복에 집중한다. Y세대(1981~1994년 태생)는 워라벨(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과 율로(You Only Live Once·현재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 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Z세대의 등장으로 X세대는 긴장하고 있다. 기업문화가 흐트러질 것이라 위기감이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기업 인사담당자 422명을 대상으로 ‘평수 같은 신입사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채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게 이를 잘 보여준다. 평수는 할 말 하는 요즘 Z세대를 대변하는 캐릭터 중 하나다.

최근 신입사원(1990년대 중·후반)들의 1년 내 조기 퇴사율도 높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66%가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 경험을 갖고 있었다. Y세대는 가끔 끈대짓을 하는 X세대 상사들이 답답하지 만, 그렇다고 특하면 자리를 박차고 회사를 떠나는 Z세대 후배들을 이해하기도 어렵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이들 세대가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기업 현장 내부의 핵심 이슈는 바로 세대 차이”라며 “Z세대를 버릇없다고 욕하기보다 그들을 이해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말을 젊은 직원들이 비꼬아 ‘당대는 말이야’로 표현한다고 해서 이런 일장연설을 후배들과 소통할 때 삼가하는 편”이라고 고도했다.

재계 관계자는 “Z세대의 자유분방함을 존중해 준다면 기업과 조직의 해묵은 난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송영록 기자 syr@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22일 서울 북한산 만경대에서 산타 복장을 한 생공산악회와 멀티암벽산악회 회원들이 로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크리스마스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9억 이상 주택대출 줄고 P2P로 주담대 받기도 어렵다

9억 초과분 LTV 20% 적용 P2P업계도 자율규제 시행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로 지적됐던 P2P(개인 간 거래) 대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P2P 금융업체 모임인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는 23일 ‘주택 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두 협회는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의 강도를 높이면서 P2P 금융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업계 차원에서 이에 주택구입용 주담대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자율규제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강화된다. 이전에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40%를 적용했다. 이제는 9억 원까지 40%를, 9억 원을 넘으면 20%를 적용한다.

P2P대출은 아직 P2P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LTV 규제를 받지 않지만, P2P 금융업계는 정부 대책에 맞춰 시가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용도와 무관하게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심사 과정에서 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해 주택매매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법외 대출이나 임대사업자 대출 등은 심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규제 차익을 노린 대출 광고나 홍보도 하지 않기로 했다.

협회는 감시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협회 차원에서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는 정기적으로 회원사 운영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박은평 기자 pepe@

재계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재검토해야”

시장경제 원칙 훼손 우려...기업·전문가와 충분한 협의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쟁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은 기업과 투자·금융 전문가, 정부 내 경제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만을 대상으로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기업 경영 개입 의도를 축소하기 위해 문구적으로 일부 조정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내용 면에서는 원안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다. 오히려 복지부가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 위원

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 개입의 단계별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원안보다 더 기를 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한다는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 의결이 연기됐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운용위원장)은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과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을 구체화하는 등 내용을 보완해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체 측은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취약해 의사결정을

함께 있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상법, 형법, 공정거래법과 함께 국민연금마저 모호한 잣대와 재량적 판단으로 기업 경영개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간섭과 규제 범위의 확대에 대한 경영간섭과 규제 범위의 확대에 대한 우려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경제 개입 주주활동은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과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극히 예외적인 때에만 중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코스피 상장사, 차입금 의존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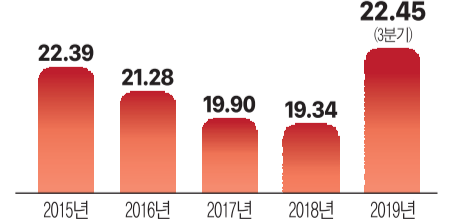
작년보다 3.1%p 증가한 22.45%...3년간 감소하다 반전

코스피 주요 기업들의 차입금의존도가 올 들어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이투데이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코스피(지주사, 금융사 제외) 100대 기업 중 95개사의 차입금의존도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차입금의존도는 22.45%로 집계됐다. 차입금의존도는 기업이 차입금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본 총액 대비 차입금 비율로 계산한다.

이들 상장사의 의존도는 2015년 22.39%에서 지난해 19.34%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 들어 반등했다. 특히 지난 2년간 19% 수준을 보였던 반면 올 해는 다시 20%대로 올라서며 최근 5년 중

코스피 상위 100대 기업 차입금의존도 (단위: %)*지주사, 금융사 제외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기 회복 기대와 달리 미중 무역분쟁과 북핵 리스크 등의 악재가 발생하자, 기업들이 자금 조달 우려 속에 저금리 차입을 서두른 결과로 풀이된다. ▶17면에 계속 고대영 기자 kodae0@

<대신증권 대표>

<自強不息>

금투協 새 사령탑 나재철... “자본시장 혁신 자강불식”

득표율 76.3%... 5대 회장 당선
35년 금융투자 현장 누빈 베테랑
증권사 균형 이익 창출 기대 높여
“자본시장 제2 도약 발로 뛴 것”



제5대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선출된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이사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센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가 제5대 금융투자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20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표에서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차기 협회장으로 선임됐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된 한국금융투자협회 임시총회에는 총 295개(증권사 57사, 자산운용사 222사, 선물사 4사, 부동산신탁사 12사) 회원사 중 221개사가 참석해 총 87.6%의 결권이 행사됐다. 나재철 대표는 76.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 3위(15%, 8.7%)와 격차를 벌렸다.

나재철 대표는 당선 직후 “사명을 맡겨

주신 회원사 대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맡겨주신 중책을 무겁고 소중히 책임으로 받아들여 많은 소통과 고민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사항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동하는 협회”, “제대로 일하는 금투협”이 돼 추진 정

책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업계의 니즈를 파악하고, 협상자로서 금융당국과 정부부처에 건의 및 제도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나 대표는 1985년 대신증권 공채로 입

사해 35년간 현직에 몸을 담았다. 지점장, 리테일사업본부장, 기획본부장, 기업금융사업단장 등을 두루 거쳐 2012년부터 대신증권 대표직을 맡았다. 2017년부터는 금융투자협회 회원이사를 지냈다. 업계는 풍부한 금융시장 경험과 네트워크로 협회 쇄신에 힘을 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업무 전반에 실무 경험이 있고 특히 홀세일 영업 경험으로 운운사와의 관계도 폭넓다”며 “또 대형 증권사 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초대형 IB(투자은행)와 중소형 증권사의 균형 잡힌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4대 전략 및 12개 법제화 추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공모리츠 상장 및 세제관련 지원 △협회 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 △규제 개혁(증권거래세 폐지 등 세계 선진화) △공정하고 투명한 신탁방식의 재개발

의무화 △회원사 정책건의 확대 △미래역량 확보(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 등이다.

최근 불완전 판매 사태 등으로 실추된 금융투자업계 신뢰 회복도 시급한 과제다. 그는 “위법사안에 대한 당국의 엄중한 조치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불완전판매 근절 등이 유사한 사태 예방의 선결 조건”이라며 “선제적 자율 규제와 투자자 책임임원칙이라는 두 축이 균형적으로 확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이 한 차원 성장하고 금융투자업계가 제2의 도약을 맞을 수 있도록 두 발로 뛰겠다”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성장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자강불식(自強不息)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34세 최연소’, ‘역대 최대 인원 승진’, ‘제철소 출신 최초 발탁’

올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연말인사에서 두드러진 여성 임원들의 승진 키워드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기업들이 조직 슬림화 등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 여성들이 주요 경영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유능하면서도 섬세함이 부각되는 여성 임원들을 대거 발탁해 역동적인 리더십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포스코는 20일 조직개편과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 제철소에서 처음으로 여성 임원을 선임했다.

김희(52) 철강생산기획그룹장은 1967년생으로 홍익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포스코에 입사해 2007년부터 광양제철소 생산관리과장을 지냈다. 이후 엔지니어 출신으로 여성

구조조정 칼바람 뚫고 ‘별’ 단 여성임원들

첫 공장장을 지낸 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 상무로 승진했다.

포스코는 “성과주의와 책임 의식을 기반으로 배려와 소통의 리더십, 실질·실행·실리 등 3실 중심의 혁신 마인드를 갖춘 기업시민형 인재를 중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LG는 85년생 최연소 여성 임원을 승진시키며 주목받았다. LG생활건강 헤어&바디케어 마케팅부문을 맡은 심미진 상무는 34세의 나이로 최연소 임원 타이틀을 달았다. 또 오후마케팅부문을 맡은 김수연 수석전문위원(80년생) 등 3명의 30대 여성 신규



김희 포스코 상무 심미진 LG생활건강 상무

김희 포스코 상무, 제철소 첫 여성 심미진 LG 상무, 34세 최연소 SK, 신규 임원 7명 ‘역대 최대’ 코오롱, 11년째 임원 승진 인사

임원 승진자가 탄생했다.

LG 관계자는 “사업 리더에 젊은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탁해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세대 사업가를 육성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과감한 도전을 통해 빠른 혁신을 이루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그룹도 여성 임원을 역대 최대인 7명을 신규 선임했다. 그룹 내 여성 임원 규모가 27명까지 확대됐다.

SK그룹 관계자는 “올해 인사는 주요 CEO 교체나 임원 규모 등에서 안정적 기초 유지 아래 신성장 관련 임원 및 여성 임원 규모는 확대했다”면서 “올해 도입된 새로운 임원제도로 젊고 혁신적인 임원들이 대거 주요 보직으로 전진 배치

되고, 연공과 직급의 벽이 사라지고 임원의 적재적소 배치가 쉬워졌을 뿐 아니라 세대교체의 실질적인 속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코오롱그룹은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코오롱미래기술원의 조은정 이사가 상무로 승진해 2010년 이후로 여성 임원의 승진이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코오롱은 지난 10여 년 동안 대졸 공채 시 여성 인력을 30% 이상 지속적으로 뽑고 있으며 여성 멘토링 제도 운영 등 여성 리더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주요 기업들은 세계적인 저성장 경제 기조의 장기화에도 여성 신규 임원 승진이 두드러졌다”면서 “능력이 검증된 주요 여성 인재들을 승진 시킴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리더십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성과주의로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2020년도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국고보조 지원 안내공고

2020년도 해외광물자원개발 조사사업 국고보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1. 보조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2. 보조사업내용
 - 투자여건조사
 - 광산개발사업에 대하여 광채 부존가능성 및 개발여건 파악으로 향후 사업추진 방향 결정에 필요한 기술 지원
 - 기초탐사
 - 초기단계 탐사타당성 조사사업에 대하여 물리탐사, 시추탐사 등 탐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자금 지원
 - 지분인수타당성조사
 - 투자진출 예정사업의 지분 또는 권리인수 타당성과 조건판단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자금 지원
- 3. 보조대상 사업비 및 보조비율
 - 보조대상 사업비
 - 투자정보가 입수된 프로젝트의 투자여건 및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 투자여건조사 비용
 - 광채 부존 여부 확인 및 유망광구 발굴을 위해 행하는 기초탐사 비용
 - 지분 또는 권리의 인수타당성과 조건판단을 위한 지분인수타당성조사 비용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 보조비율
 - 투자여건조사 : 100%(광물공사 현지조사비용 등)
 - 기초탐사 및 지분인수타당성조사 : 보조대상 사업비의 70% 이내
(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의해 보조비율 등 지원조건은 변동될 수 있음(2020년 1월 공고예정))
- 4.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필수(공통)제출서류	기초탐사 추가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광업권사본, 광구도 사본 각 1부 - 권리관계 증명서류(계약서 등), 기초조사보고서 - 지형도 및 지질도 1부(1:50,000~1:5,000) - 사업자등록증(단, 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인 경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 국고보조사업 확인서	- 탐사계획서 및 도면 1부 - 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및 자격증명 서류(2개 업체 이상) (단, 2회 이상 기 지원사업은 자체 사업발표 실시)
	지분인수 타당성조사 추가서류
	- 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및 자격증명 서류(2개 업체 이상)
- 신청방법
 - 공사에 신청서 제출 (우편 또는 E-mail(expo@kores.or.kr)로 신청가능)
- 5. 신청기한 : 연중 수시접수 (단, 1차 신청은 2월 12일(수) 오후 4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 6. 지원대상 선정기준
 - ‘조사지원 사업선정 검토기준’에 따라 대상광물의 자원개발필요성, 투자환경, 개발 가능성 등 각 검토요소에 대해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한국광물자원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s.or.kr)를 참고하시거나 한국광물자원공사(☎ 033-736-5457, Fax 033-736-5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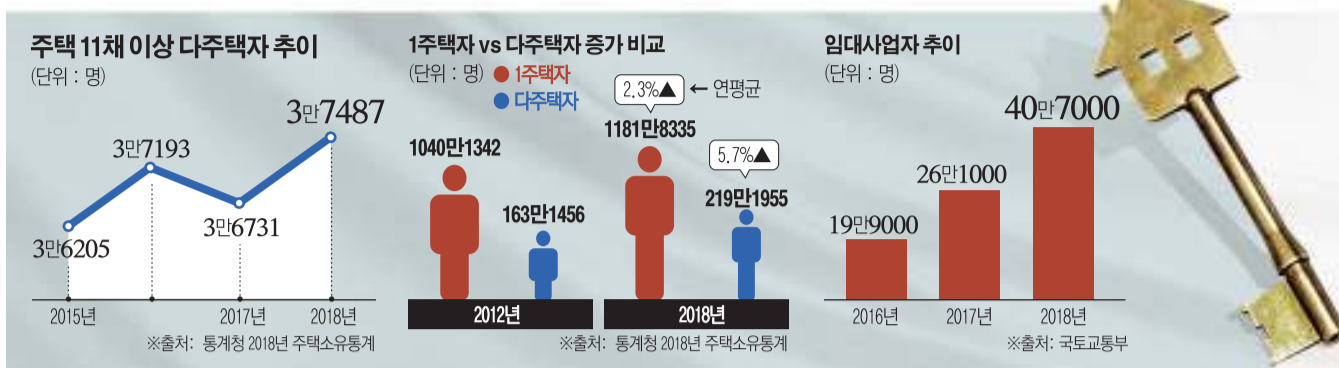
2019. 12. 23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한국, 6채 이상 다주택자 8만7300명 '역대 최대'

2018년 주택소유통계
 2채 이상 보유 219만1955명
 연평균 다주택자 증가율 5.7%
 정부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에
 겹투자자 집값 꺼질라 불안
 美 다주택자가 금융위기 불려



로 인해 한층 두텁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의 다주택 구입과 주택시장 거품 및 붕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미국 주택시장을 분석한 결과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다주택 구입 비중이 2000년 21%에서 이른바 '꼭지'였던 2006년에는 36%를 기록했다.

이후 급락기와 금융위기를 겪은 뒤인 2009~2011년에는 이 비중이 다시 20%로 떨어졌다.

주택 가격 급등락은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지만, 특히 다주택자 신규 대출이 몰렸던 지역에서 더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호황기인 2000~2006년 다주택자 신규 대출 비중이 10%포인트 더 높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률이 다른 곳보다 16%포인트 높았던 것이다.

거품이 꺼진 뒤에도 이 지역의 집값 하락률은 평균보다 7%포인트 높았다.

문선영 기자 moon@

최근 6년 새 다주택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주택을 10채 넘게 소유한 집 부자가 3만7487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11채 이상 소유자는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정부가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다주택자가 급증하는 것은 주택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 세부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 수는 2012년 163만1456명에서 지난해 219만1955명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 5.7%다.

특히 주택 11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3만7487명으로 전년보다 2.1%(756명)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2012~2014년 2만 명대였던 주택 11채 이상 소유자는 2015년 3만6205명으로 늘

어난 뒤 2016년 3만7193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7년에 3만6731명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택을 6~10채 가진 이들도 4만9819명으로 작년보다 2.1%(1045명) 증가했다.

이처럼 다주택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집값 역시 크게 상승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2013년 이후로 매년 0.4~4.4% 오르고 있다. 서울을 제외하더라도 지난해 상승률은 10.4%로, 2006년(18.9%)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

았다.

문제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가 지속되면서 집값이 하락했을 때다.

특히 대출과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르면 매매차익을 노리는 소위 '갭투자'에 나선던 다주택자들의 경우 집값 거품을 키우는 주범이자 집값 거품이 꺼졌을 경우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배경으로 꼽히는 미국 주택시장 거품이 다주택자

한국 부동산 보유세 낮지만, 거래세는 OECD 최고

GDP 대비 보유세 비율 0.87%... OECD 평균 1.06%
 정부 장기적으로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는 인하 방침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18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등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로 커 실재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R

-eurrent taxes on immovable, 부동산 자산에 대한 반복 과세)은 0.87%로 전년보다 0.04%포인트(P) 상승했다.

현재까지 통계를 발표한 OECD 33개국 평균은 1.06%다. 한국은 평균보다 0.19%P 낮고, 순위로는 중간보다 조금 높은 15위였다.

보유세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캐나다(3.13%)였고, 영국(3.09%), 미국(2.69%), 프랑스(2.65%) 등 순이었다. 한국의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

다 높았던 적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90년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OECD 평균에 가장 근접했던 때는 2005년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영향을 받았던 2007년(0.88%)과 2008년(0.89%)뿐이다. OECD 평균과 격차는 각 0.03%P, 0.04%P였다.

지난해 9·13 대책으로 종부세가 강화됐고, 12·16 대책을 통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종부세율과 세 부담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보유세 비율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전년 대비 2조1000억 원 증가한 15조 5000억 원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

청이 고지한 올해 종부세 납부액(3조 3471억 원)은 작년보다 58%(1조2323억 원) 증가한 규모다.

보유세와 달리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율은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한국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율은 1.57%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증권거래세까지 포함한 OECD 거래세 비율은 작년 기준 2.01%로, 2위인 벨기에(1.09%)와 비교해도 격차가 컸다.

정부는 보유세를 높일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

세가 높다. 시장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부도 같은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에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침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이해훈 의원은 이날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맞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한 번에 130% 이상 오르지 못하게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세 부담 시 1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개정안은 또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을 확대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뚝뚝, 나기도 될까요?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인가요?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깨끗한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나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어린이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거정책이 어린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아동 주거권 증진을 위한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의 제도 개선 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함께 해주세요
 1588-1940 www.childfund.or.kr



金배지 노리는 관료들... 관가 분위기 '뒤숭숭'

인지도·전문성이 최대 강점
與 관료영입 전략 따라 출사표
김용진·김경욱 전 차관 등 줄이어
“현안 뒤로한 채 떠나” 쓴소리도



김용진 전 차관 김경욱 전 차관 문미옥 전 차관 노태강 전 차관

나주·화순 지역에서 민주당 공천을 신청하기 위해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기자회견을 가진 바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국회 입성을 노리는 관료 출신 인사들의 행보가 쟁결을 이다.

관료 출신 인사는 ‘인지도’와 ‘전문성’이 모두 검증됐다는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선거 때마다 정치권 영입 대상으로 거론된다. 더욱이 중도층 공약을 위해 관료 영입에 공을 들이는 여당 선거 전략과 겹치면서 이번 총선 국면에서는 전현직 관료의 출마가 특히 많아졌다. 반면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여의도행(行)을 택하면서 관가 분위기는 뒤숭숭해졌다는 평가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김경욱(53) 국토교통부 2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다. 고향인 충북 충주에서 출마를 준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충주 현역 의원은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앞서 12일에는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고향인 경기 이천에서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민주당에 입당한 뒤 선거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인 송석준 한국당 의원이다. 두 사람이 총선에서 맞붙게 되면 관료 출신 대결로 주목

을 받을 전망이다.

공식화하지 않은 전현직 관료 상당수도 ‘총선 라인업’에 이름이 오르내린다. 최근 자리를 떠난 문미옥 과기부 1차관과 노태강 문체부 2차관 역시 총선 출마가 확정적이다. 현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본인은 뜻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취약 지역인 강원 춘천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출신지역인 대구 또는 비례 대표로 출마할 것이라는 설이 무성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본인이 출마 의지를 보이거나 여당의 영입 의지가 강하다.

청와대 참모진 상당수가 역시 총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당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과, 고민정 대변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운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 김의겸 전 대변인, 박수현 전 대변인,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 전직 청와대 관료 상당수도 이미 지역구에서 총선 기반을 다지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에서도 출마설이 활발하다. 최근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전남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도 이번 총선 출마자로 거론되는 중이다.

장차관들의 총선 행렬을 바라보는 관가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정부부처가 정치권 일정에 휩쓸려 현안을 제대로 챙기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일례로 국토교통부의 경우 ‘타다 금지법’ 등 핵심 현안을 책임지던 김경욱 전 차관이 돌연 손을 놓은 것을 두고 내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문미옥 전 차관이 산적한 과제를 뒤로한 채 자리를 떠난 것을 두고 과기부에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정치 1번지 종로’ 이낙연·황교안 맞붙나

성사 땀 미리보는 ‘대선 매치’

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이낙연 대 황교안’ 빅 매치가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 국회의장이자 5선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로 지명되면서 그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가 이른바 무주공산이 됐기 때문이다.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종로 출마를 통해 ‘호남계’라는 고정관념을 뛰어넘는다는 실익을 얻는다. 이 총리는 2000~2012년 전남(담양, 함평, 영광)에서 연이어 4선을 했고, 2014년부터 전남지사를 지냈다.

종로는 수도권은 물론 대한민국 심장부로 대선주자급 인사들의 산실이란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실제 1996년 15대 총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9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종로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후 각각 대선 주자로 도약했고 청와대에 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세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 총리 입장에서 종로 당선 시 수도권에서도 경쟁력 있는 정치인이라 점을 입증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선 주자 지지도 1, 2위인 여야 대표 인사가 내년 4월 총선에서 ‘대선 전초전’을 벌일 공산이 크다. 양측 모두 “종로를 포함해 지역구 출마 여부 자체를 언급하기 이른 시점이지만, 당이 원

한국당 입당 43일 만에 당 대표로 선출될 만큼 보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황교안 대표 역시 당 대표로 선출된 2월 말 이후 꾸준히 ‘종로 출마설’이 제기됐다. 그때부터 황 대표는 “당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당내 협치 출마 요구에 직면한 황 대표로서는 서울 종로 출사표로 보수 결집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北, 국방력 강화 논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으며, 인사와 군 조직개편도 단행됐다. 연합뉴스

한국당 ‘비례한국당’ 카드에 정치권 시끌

심상정 “주권자의 뜻 왜곡... 망언”
홍준표 “개악에 대한 합법적 대처”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랑잡아도 복잡한 선거법 개정 협상 섹션이 엮히고설키는 형국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회(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공조도 빠듯한 상황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좌파 연합세력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이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비례한국당을 장담할 경우 현역 국회의원을 비례한국당으로 출마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현행법상 위성정당 창당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민주당은 ‘해괴한 방식’, ‘괴물’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내부에서는 ‘우리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공당이 그런 탈법적이고 주권자의 뜻을 노골적으로 왜곡하겠다는 망언을 할 수가 있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꿈수가 아닌 부당한 선거제도 개악에 대한 합법적 대처 방안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카드와 대규모 규탄대회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례한국당 창당을 현실화하려면 난관도 있다. 당장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게 아닌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당으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

현실적인 난관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에 맞서 ‘비례한국당’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허를 찔린 여권 등 각당의 섹션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만성질환은 가까운 동네의원으로!

암 같은 큰 질병은 중증질환 전문병원으로!

생활습관을 상담받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쌓고,
그래서 가까운 동네의원이 좋습니다

40대 맞춤형 고용대책?... 약속했지만 수가 안 보인다

40대 비중 큰 제조업, 수출·투자 줄자 '고용한파'... 전직 쉽지 않아
도·소매업도 온라인으로 유통구조 일자리 감소... 정부 고민 깊어져

내년 1분기 발표가 예정된 40대 고용대책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훈련을 통한 재취업 지원, 40대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취·창업 지원이라는 큰 방향은 정했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구직이 쏠린 일자리 수급 불균형(미스매치)을 해소할 뾰족한 수가 없어서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고용률은 78.4%로 전년 동월보다 1.1%포인트(P) 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8년 12월(-1.2%P)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40대 고용률 하락은 주로 제조업

과 도·소매업에서 이뤄졌다. 두 산업은 40대 취업자 비중이 큰 대표적인 산업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각각 8만 8000명, 2만6000명 감소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내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투자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도·소매업은 온라인·무점포 위주로 유통구조가 변화하고 있어서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도·소매업은 특정품목을 파는 소매점이 주로 온라인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고용원 있는 자영업이 줄면서 고용원도 함께 일자리를 잃고, 따라서 임금·비임금 근로자가 함께 감소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렇다고 기존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들을 다른 산업으로 이동시키기도 쉽지 않다. 그나마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도·소매업 취업자나 자영업자는 다른 산업·업종으로의 이동이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이 쉽지만, 숙련력이 대다수인 제조업에선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어도 동일 산업 내에서 재취업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면 숙련도에 따른 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추가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성 실장은 "제조업에 오래 있던 분들은

다른 산업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순 없으므로 직업·훈련이나 컨설팅으로 새로운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고 그 기간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게 일차적으로 생각할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모든 사람을 전직시킬 순 없지만, 이미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기존 직업과 관계없이 새로운 직장이 필요하다"며 "아직은 경제정책 방향에 제시된 정도밖에 말할 수 없지만, 발표가 임박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가 살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오늘부터 반값

23일부터 민자고속도로인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최대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이달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23일 오전 0시부터 최장거리(80.2km) 기준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된다.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해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했고 2018년 12월 연구 결과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 올해 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했다.

이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자액을 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2032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재벌 금융·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출자 3년 새 1900억 ↑

공정위 "편법 여부 관찰 필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최근 3년 새 19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금융·보험사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도 확 늘어 총수 일가의 금융·보험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32개로 총 220개의 금융·보험사를 소유했다.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은 17개 집단이며 소속 금융·보험사 수는 79개사다. 이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41개사로 2016년(28개사)보다 13곳이 늘었다.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2016년 2900억 원에서 2019년 4800억 원으로 3년 새 1900억 원이 늘었다.

의결권 행사를 점검한 결과 이번 조사 대상인 삼성, 롯데, 한화, 농협, KT, 미래에셋, 하림 등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2개 금융·보험사가 16개 계열사에 대해 총 165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횟수는 2013년 134회, 2016년 158회, 2019년 165회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7개 집단 가운데 하림 소속 에코캐피탈(11회), 교보생명보험 소속 KCA손해사정(7회)이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18회 행사했다. 이는 2016년(1개사 6회)과 비교해 12회 더 많은 것이다.

위법 유형으로는 의결권 행사가 전면 금지된 주식에 의결권 행사한 경우가 13회, 비금융 상장계열사에 대해 지분 15%를 넘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가 5회다. 공정위는 에코캐피탈과 KCA손해사정에 각각 시정 명령,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사가 대체로 의결권을 제도 취지에 맞게 행사하고 있다"면서도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증가 추세이고, 2016년 조사 시보다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가 늘어 금융·보험사를 통한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성운모 장관, 中 상무부 장관 만나

성운모(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조어대 5동 백인홀에서 중산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내일 韓·日 정상회담... '성탄절 선물' 내놓을까

'악화일로' 양국 분위기 달라져
日, 회담 앞두고 규제 품목 완화
정부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야"

분위기가 달라졌다. 올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단행 이후 한일 양국이 백색국가(수출우대국) 명단에서 서로를 제외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 관계가 부드러워진 것이다. 이에 24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수출규제 해소'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본은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0일 수출규제 대상 품목 3가지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 것.

일본 정부는 앞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을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특정포괄허가는 일본 수출기업이 일정 기간 정상적인 거래 실적이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할 경우 포괄적으로 수출허

가를 내주는 제도다. 일반포괄허가와 개별허가의 중간 수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양국이 수출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 일본이 한발 물러서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16일 도쿄에서 양국 통상갈등 해소를 위해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성과로 해석된다.

한일 통상당국은 일본 경산성에서 3년 반 만에 열린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끝나고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전문적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해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어 실력으로 해외 연수만 노리는 '꿈수 공무원'

정부 전액 지원... 인사고과 유려
어학점수 좋으면 또 갈 수 있어
관가 '골치'... "규정 개선 필요"

#경제부처에 일하는 A 사무관(7급 공채 출신)은 단기 해외 연수에 관심을 가졌지만 접기로 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에 문의한 결과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어학 점수가 없어서다. A 사무관은 대학 시절에 딱 토익 점수는 안 되냐고 물었지만 최근 2년 내 성적만 인정된다고 답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외 교육훈련(해외연수)에 소외감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중앙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토익 등 어학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외 연수를 엄두조차 못 낸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국외 단·장기 교육훈련을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외 단기 교육훈련은 6개월 미만이며, 장기 교육훈련은 6개월 이상이다.

국외 단기 훈련의 자격 어학 요건은 영어권의 경우 TOEFL 71점(IBT), 서울대하

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60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G-Telp(Level II) 70점, TOEIC 675점, IEPS 600점 이상(New TEPS 327점 이상)이다. 비영어권은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60점 이상이다. 국외 장기 교육훈련의 경우 단기 훈련보다 5점 정도 높다.

이러한 어학 점수는 최근 2년까지 인정된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치러 해당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국외 교육훈련의 장점은 훈련 공무원들에게 현지 체재비, 본인과 자녀 학자금, 항공료 등을 정부가 지급해주고 무엇보다도

한국이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고 일본이 요구하는 수출관리 인원을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일본 역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를 완화하면서 갈등 봉합을 위한 노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본은 수출규제 대상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고, 8월 28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한국의 수출관리 백색국가 제외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양국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우리의 목표는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교육 이수 시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해외 연수만 노리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사회부처 한 공무원은 "해외 연수를 갔다 온 후 신청 제한 기간이 풀리면 다시 해외 연수를 가는 직원들이 꽤 된다"며 "이들의 공통점은 영어를 잘해 쉽게 어학 점수를 만든다는 점인데 이를 보면 솔직히 부럽기도 하면서 박탈감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수 공무원의 해외 연수 편중 현상이 심화하면 동료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국외 교육훈련 지침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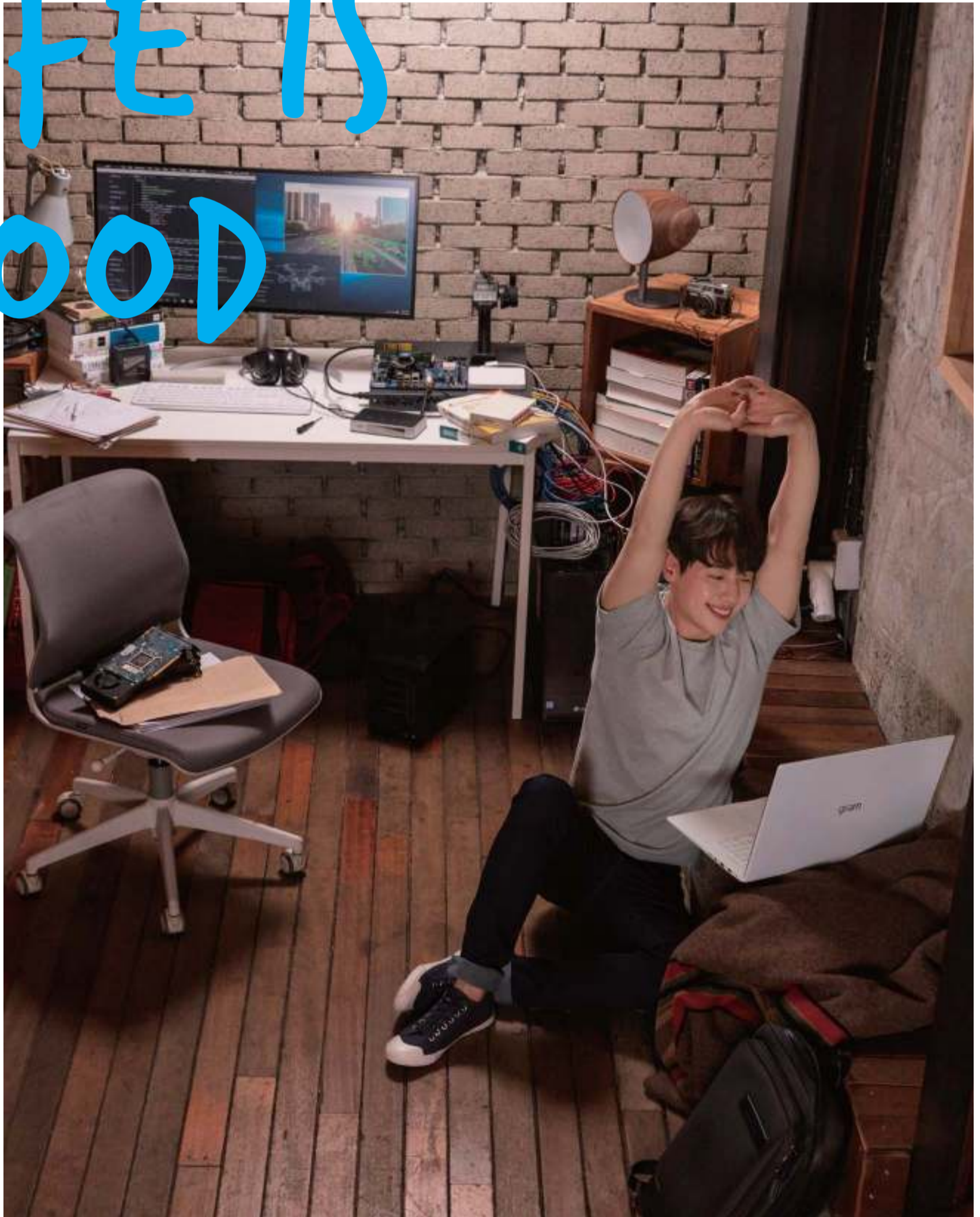
시작하는

LIFE IS GOOD

- 길은 따라가는 것
- 길은 만들어가는 것

새로운 길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니까

당신의 더 행복한 LIFE를 위해



LG는 스타트업 테크페어를 통해, 공동 연구·사업화 및 투자 지원·연구 공간 제공 등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버’서 발 빼는 공동설립자 ‘칼라닉’

의무보호예수 기간 끝나자 보유 주식 90% 이상 매각

세계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 테크놀로지의 공동 설립자이자 전 최고 경영자(CEO)인 트래비스 칼라닉이 최근 우버 지분을 급속히 매각하는 등 아예 회사와의 인연을 끊는 듯한 모습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칼라닉은 최근 7주간 자신이 보유한 우버 지분의 90% 이상인 25억 달러(약 2조9025억 원)가 넘는 주식을 매각했다. 이런 추세라면 칼라닉은 앞으로 수일 안에 우버 지분 전량을 팔아치울 수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우버는 5월 상장하고 나서 첫 6개월간 기존 투자자들의 주식 매각이 금지됐다. 지난달 이런 의무보호예수(Lock-up) 기간이 끝나고 나서 칼라닉은 더는 우버에 미련이 없는 듯 회사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칼라닉은 우버를 세계 최대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키웠지만, 성차별 등 잘못된 기업 문화와 직원들의 잇따른 성추문 스캔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등으로 비판이 쏟아지면서 2017년 CEO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후 세계 최대 온라인 여행업체 익스피디아 CEO였던 다라 코스로우샤시가 신입 CEO로 영입되면서 우버 구원투수 역할을 맡게 됐다.

칼라닉이 자신이 세운 회사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밀어낸 투자자들과 현 우버 경영진으로 인해 오랫동안 좌절을 겪어왔다고 WSJ는 지적했다. 우버가 뉴욕증시에 상장했을 당시 열렸던 ‘오프닝 벨’ 행사에서도 칼라닉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칼라닉이 새로운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우버 지분을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버는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중심으로 공유주방 스타트

업인 클라우드키친을 운영하고 있다. 클라우드키친은 올해 한국 토종 공유주방 스타트업 ‘심플키친’을 인수하는 등 한국시장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칼라닉이 우버의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걸지 않았을 수도 있다.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지분을 정리,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버는 올해 글로벌 증시 IPO 기대주 중 하나였으나 상장 이후 지금까지 주가가 30% 이상 하락하는 등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 주가 하락의 최대 이유는 수익성에 대한 불안이다. 우버는 지난 분기 적자 규모가 12억 달러에 달했다.

세계 각국의 규제 강화도 우버의 설 자리를 좁게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9월 차량공유업체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규정해 우버의 사업모델을 뒤흔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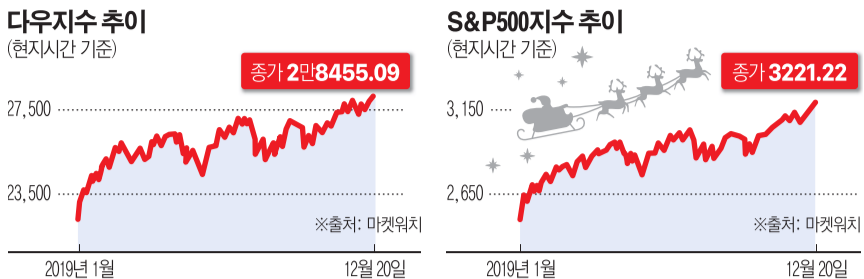
배준호 기자 baejh94@

배준호 기자 baejh94@

배준호 기자 baejh94@

배준호 기자 baejh94@

배준호 기자 baejh94@



훈풍 타는 美·中 협상 거침없는 ‘산타 랠리’

트럼프-시진핑 통화로 협상 확인 다우·S&P, 올 상승폭 20% 넘어 내년에도 ‘황소장’ 지속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산타 랠리’에 더욱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올해가 끝나기까지 2주 앞둔 뉴욕증시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새해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21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과 금융전문 매체 마켓위치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회담을 마치고 트위터에 “시 주석과 우리의 거대한 무역합의에 대해 좋은 대화를 했다”며 “중국은 이마 대규모로 우리 농산물과 그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정식 서명 작업이 준비되고 있다”고 썼다.

시 주석도 “1단계 무역합의는 양국과 전 세계에 혜택을 줄 것”이라며 “합의는 평등과 상호 존중의 기초 아래 이뤄졌다”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USTR)는 “워싱턴 D.C.에서 나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다음 달 초 86페이지에 달하는 무역협정 서명문에 서명하고 나서 이를 공표할 것”이라며 “서명 후 30일 뒤에 발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협정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하면서 뉴욕증시는 연말 강한 기세로 오르고 있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전날 사상 최고치를 일제히 경신했다. S&P지수는 지난 한 주간 1.5% 상승해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다우지수가 1.2%, 나스닥지수가 2.1% 각각 올랐다. S&P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200선을 돌파했으며 지난 8월 이후 가장 좋은 주간 성적을 올렸다. 나스닥도 4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무역 긴장이 완화되면서 글로벌 제조업 경제가 개선 조짐을 보이기 시작, 투자심리를 더욱 고조시켰다고 CNBC는 풀이했다. 한때 장단기 금리 역전 등 리세션(Recession·경기침체) 신호를 보냈던 채권시장도 잠잠하다.

한편 미국 하원이 18일 본회의에서 역대 세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상원 탄핵재판에서 트럼프 탄핵안이 부결돼 재정이나 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전문가들은 뉴욕증시가 1분기에 조정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지만 2020년은 전반적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강세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우지수는 올 들어 지금까지 22%, S&P지수는 28.5% 각각 올랐다. 마켓위치는 두 지수가 지난 70년간 최소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나서 그다음 해에도 강세를 유지했다며 다우는 평균 약 8.9%, S&P지수는 11.2% 각각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나스닥지수는 올해 상승률이 34.5%에 달했는데 30%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나서 그다음 해 상승률은 평균 14.2%에 달했다.

이런 역사적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지면 뉴욕증시가 올해처럼 강한 랠리는 아니더라도 견실한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마켓위치는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무슬림 차별법 반대” 한 소년은 21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 있는 ‘자미아 밀리아 이슬라미야’ 국립 대학교에서 열린 ‘시민권법 개정안’ 반대 시위에 참여해 뜻을 들고 있다. 1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인도로 온 힌두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시크교도, 자인, 파르시 신자에게 시민권 신청 자격을 주면서도 무슬림을 배제하자 무슬림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가 인도 전역으로 확산했다.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24명이 숨지고 7000명이 구급됐다. 뉴델리/AP연합뉴스

영국 ‘脫 EU’ 관문 넘었지만 커지는 ‘하드 브렉시트’ 공포

EU와 단일시장·관세동맹 모두 탈퇴 가능성

영국 하원의 이행 법안 통과로 내년 1월 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보리스 존슨 영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하원은 전날 ‘EU 탈퇴협정 법안’을 찬성 358표, 반대 234표로 가결했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정부와 EU가 타결한 탈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 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시행법(국내법)을 말한다.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이행 기간,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브렉시트 이행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내년 1월 말 브렉시트는 거의 확실시됐다.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영국은 EU와 올 연말까지의 이행 기간 자유무

역협정을 포함한 미래 관계 협상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영국이 EU 단일 시장, 관세동맹을 모두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 공포가 커지고 있다. 존슨 총리는 이번 브렉시트 이행 법안에 기존 조항을 삭제·추가 등 변경하면서 내년 12월 31일로 설정된 브렉시트 이행 기간의 연장은 없다는 점을 법으로 못 박았다.

앞서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에 따르면 양측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이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1~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EU가 요구하고 있는 이행 기간 연장을 아예 배제한 채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U는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새 미래 관계 합의에 이르라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미셸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 대표는 “내년 말까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런던 총리관저에서 총선 후 첫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런던/AP뉴스

협정을 마무리 짓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과제”라면서 “영국은 부작용을 줄이고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EU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이행 법안 가결 직후 “영국이 브렉시트 완수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면서 “EU와 야심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하원은 표결 직후 별도 의사일정 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하원은 크리스마스 휴회기를 보낸 뒤 내년 1월 7~9일 EU 탈퇴협정 법안에 대한 추가 토론을 펼치게 된다. 위원회 단계에서의 상세한 심사 등을 거쳐 의결이 되면 하원을 최종 통과하게 된다.

김서영 기자 ojung2@

러-우크라, 천연가스 공급 5년 연장 합의

미국 vs EU 갈등 새 불씨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가로지르는 ‘노르트 스트림(Nord Stream)’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에 공급하는 계약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과 우크라이나 국영 가스회사 ‘나프트가스’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5년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 계약은 올해 안에 체결될 계획이며 새 합의안에는 추가로 10년 더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올렉시 오르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은 “내년에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650억㎥가 유럽으로 운송될 것”이라며 “2021년부터는 매년 400억㎥의 가스가 운송된다”고 설명했다.

유럽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중 40%는 노르트 스트림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계약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데다가, 노르트 스트림을 운영하는 가스프롬과 나프트가스가 계약 조건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성이 커져왔다.

알렉세이 밀레르 가스프롬 사장은 “나프트가스에 29억 달러(약 3조 3700억 원)를 지불하기로 했다”며 “양측은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기존 모든 소송을 취소하고 새로운 법정 공방을 시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유럽은 최대 공급원인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게 됐지만 미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북서부에서 독일로 향하는 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인 ‘노르트 스트림2(Nord Stream2)’에 대한 제재를 발효했다. 그는 전날 노르트 스트림2와 ‘투르크 스트림’ 건설 사업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김서영 기자 ojung2@

〈규제개혁위원회〉

‘보험설계사 첫해 수수료 분할 지급’ 규개위서 재논의

설계사 23만 명 생계 위협 우려
중요 안건으로 분류 본심사 상정
27일 이해관계자들과 대면심사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안건으로 판단돼 본심사에 상정된다. 23만 명 설계사들의 소득이 결린 만큼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더 들어보겠다는 의미다.

23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일 이후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규개위는 행정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고 할 때 규제에 따른 영향과 규제 대상·범위·방법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예비심사, 본심사가 있는데 예비심사는 규제의 중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절차다.

예비심사 결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가운데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안만 본심사로 넘어갔다. 규개위 관계자는 “해당 안건은 보험회사의 모집종사자에 대한 준수 행위를 추가하고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금액의 상한을 설정해 모집수수료 분할 지급 방식을 도입하는 안건으로, 새롭게 신설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8월, 보장성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사책)을 포함해 120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최대 17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보험대



리점(GA) 소속 설계사의 1차 연도 모집수수료는 보험사 전속 설계사보다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함께 논의된 보장성보험 중 위험보장 기능이 없는 부분의 해약공제액 한도 축소, 갱신형 및 자동갱신형 보험상품의 계약체결 비용 축소,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 비용을 부과하는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공시기준 강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 축소 안은 모두 규제 '강화'로 판단돼 비중요 안건으로 결정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나머지 안건 역시 규제 강화 안건이지만 신설된 사항이 아니라 점에 비추어 비중요 안건으로 결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본심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며,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면심사로 진행된다.

GA업계는 개편안은 설계사 소득 수준으로 직결되는 만큼 본심사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GA업계 관

계자는 “과거 규개위는 금융당국이 저축성 보험 수수료 분급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급 비중과 수수료 인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1년 유예를 권고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설계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해당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전날 보험사 사장단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의 간담회에서 보험사업비·모집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서지연 기자 sjy@

〈기업 PR〉

현대카드, 문화 콘텐츠 앱 '다이브' 정식 출시

현대카드가 새로운 디지털 문화 콘텐츠 앱 '현대카드 다이브' 서비스를 정식 출시한다.

7월에 선보인 현대카드 다이브는 오프라인 위주로 진행돼온 현대카드의 브랜드 활동을 온라인 세계로 확장한 현대카드의 새로운 디지털 문화 콘텐츠 공간이다. 특히, 베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5개월 만에 누적 다운로드 수 35만 건을 돌파하고, 카테고리 내 인기 앱 2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정식 서비스에는 기능을 더 강화한다. 유명 창작자로 구성된 전문 필진이 아티클 시리즈에 참여한다. 남성 라이프스타일 잡지 '아레나' 편집장을 역임한 박지호를 필두로 월간 '디자



인' 전은경 편집장과 트렌드 매거진 '인디드' 성범수 편집장, 배순탁 음악평론가, 아티스트 봉태규 등이 참여한다.

이 밖에 세계적인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엔비'가 새로운 크리에이터로 참여해 지역과 테마, 콘셉트별 숙소를 추천하고 행사를 함께 진행한다. 또, 라이프스타일 쇼필름 '29CM'은 패션, 뷰티, 인테리어, 라이프스타일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카테고리의 콘텐츠와 상품을 제안할 계획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크리에이터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현대카드만의 신개념 스페이스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금융지주 인사 키워드 '안정'

불황 속 안정적 경영 성과 초점
KB·신한 자회사 CEO 대거 연임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최근 진행한 사장단 인사에서 '조직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기보다 기존 인물들을 그대로 연임시킴으로써 조직에 큰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KB금융지주는 20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열었다. 대추위는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KB손해보험 양종희, KB국민카드 이동철, KB자산운용 조재민·이현승, KB생명보험 허정수, KB저축은행 신홍섭, KB인베스트먼트 김종필, KB신용정보 김해경 사장에 대해 전원 연임을 결정했다. 앞서 KB국민은행 허인 은행장은 지난달 2년 임기를 마친 뒤 1년 연임을 확정했다.

특히 양종희 KB손보 사장은 3연임에 성공하며 눈길을 끌었다. KB손보가 보험업황 악화에도 안정적인 성과를 내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그 배경으로 풀이된다. 지난 3분기 KB손보 순이익은 677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5% 줄었지만, 손보업계 손해를 급등 등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은 사업 다각화로 KB국민카드의 실적 방어에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KB국민카드 3분기 순이익은 1049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368억 원 증가했다.

대추위는 “국내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초저금리 시대 도래 환경하에서 가시적인 경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했다”면서 “재임 기간 중 경영 성과와 추진력, 조직관리

리더십 등을 종합 검토해 대표이사 후보로서의 적정성을 살폈다”고 말했다.

재선정된 대표이사의 임기는 1년이며, 이달 중 해당 계열사의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최종 심사·추천을 거친 뒤 주주총회에서 이들의 연임이 확정된다.

19일에는 신한금융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가 열렸다. 자경위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8명 중 7명을 연임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내년 3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기 출범을 앞둔 만큼 변화보다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는 분석이다.

신한금융 자경위는 신한카드 임영진, 오렌지라이프 정문국, 제주은행 서현주, 신한저축은행 김영표, 아시아신탁 배일규, 신한대체투자운용 김희승, 신한리츠 운용 남궁훈 등 계열사 7곳 CEO 연임을 추천했고, 이성용 신한DS 사장만 신규 선임됐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3연임에 성공했다. 임 사장은 카드 업황의 침체에도 업계 1위의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한카드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41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세상을 바꾸는 금융

가족 모두 건강해야 하니까 희망 가득 드릴게요!

우리는 많은 날을 살아갑니다
아픈 날도, 아프지 않은 날도
KB손해보험은 생각합니다
가족 모두를 든든하게 케어해주는
건강보험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

희망 가득한 보험
KB손해보험

생활 속 다양한 보장과 케어를 하나로!
☎ 1544-0114
KB The드림365건강보험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2125호 (2019.01.07)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센터:1544-0114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 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원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KB 손해보험

세계 유일 밀폐돔 저장시설... 열연강판 1개 만드는 데 3분

철강코리아 No. 1

철강을 '산업의 쌀'이라고 부른다.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산업이다. 자동차, 조선, 해운, 항공, 건설 등 걸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산업 경쟁력을 좌지우지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철강업체들은 '대한민국의 지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투데이는 보이지 않지만 세계 수출의 근간인 철강 생산 현장과 이를 발판으로 해외에 뻗어나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제품과 기술을 3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상>

“무려 14km 길이의 철판에 기차가 다니고, 공중에는 롤러코스터를 연상케 하는 레일이 하늘을 휘감고 있다.”

디즈니랜드의 롤러코스터가 아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2.9km²)의 3배에 달하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도착하면 펼쳐지는 풍경이다.

용광로(고로)에서 만들어진 쇳물은 '토펬도카'라 불리는 기차가 열심히 실어 나른다. 철광석을 당진 앞바다에서부터 고로까지 이동시키기 위해 1.6km가량 이어져 끝이 보이지 않는 컨베이어벨트(밀폐형)는 그야말로 장관이다. 미국에서 롤러코스터는 산을 넘어 석탄을 실어날랐던 협궤철도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2006년 11월 한보철강 인수 후 바다, 갯벌 등을 모두 매립해 만들어진 이곳. 2010년 국내 최초로 민간 자본으로 일관제철소를 완공하고 H형강을 대한민국 최초로 생산함은 물론 봉형강 부문 세계 수출 1위를 달성한 이곳, 당진제철소를 13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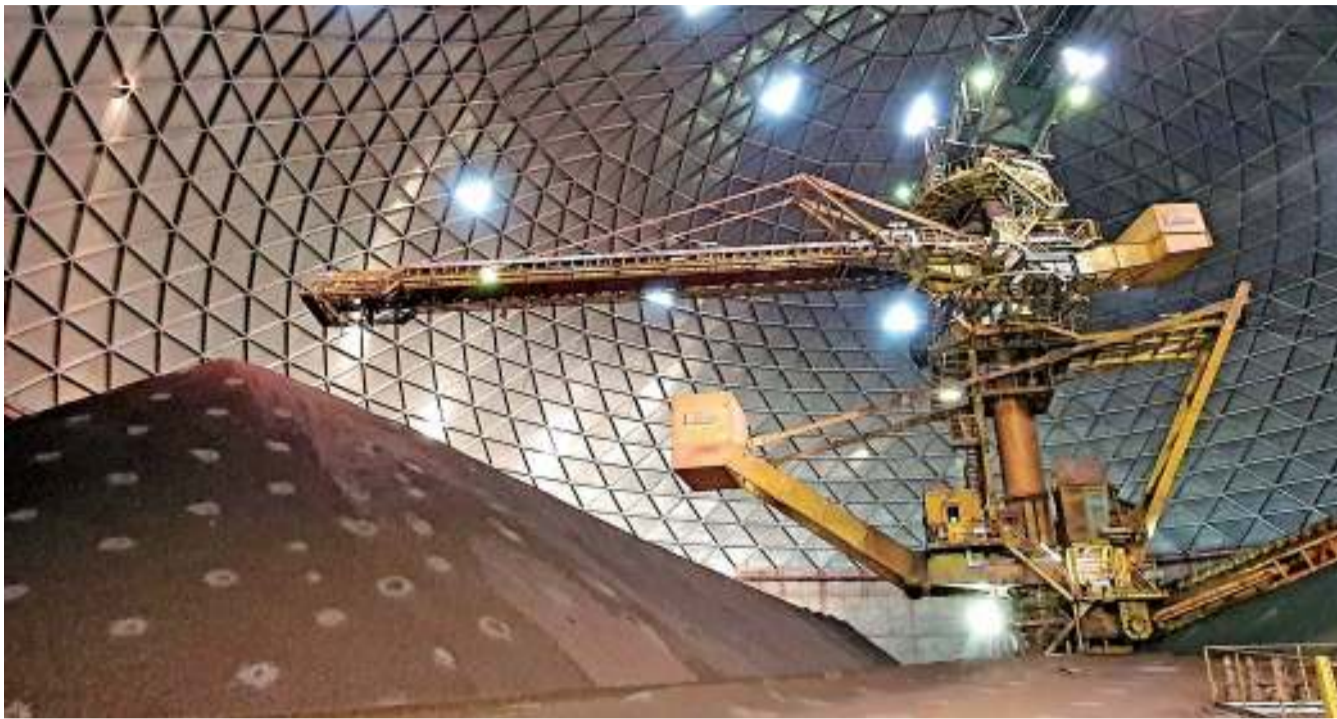
◇독일도 깜짝 놀란 세계 유일의 밀폐형 원료저장시설 = 당진제철소는 철강제품의 원재료인 철광석을 100% 수입해서 쓴다. 연간 2000만 톤에 달한다. 수십만 톤에 달하는 철광석이 벌크선을 타고 3~4일에 한번꼴로 당진항에 도착하는 셈이다.

2.8km에 달하는 부두에는 13개의 선석(접안장소)이 있다. 현대제철의 로고가 박힌 연속식 철광석 하역기 8대가 대기 중이다.

하역기는 한 번에 무려 72톤에 달하는 철광석을 퍼내른다. 1톤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 72개가 대롱대롱 줄지어 달려 있다. 이들 바구니가 물레방아 굴러가듯 실새 없이 배 안으로 들어가 철광석을 퍼내는 원리다. 하역된 원료들은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해 보관 돔에 보관된다.

당진제철소에는 총 7개의 돔이 있다. 그중 4개는 철광석을 보관하는 돔, 나머지 3개는 한 번에 150만 톤의 철광석을 적치하고 섞을 수 있는 배합 돔이다.

이곳의 돔들은 세계 유일의 밀폐형 원료



▲높이 60m, 직경 120m의 철광석 저장돔에 쌓여 있는 철광석. 세계 유일의 밀폐형 원료저장시설로 업무의 80%는 전자동화로 이뤄진다.

◀ 열연공장에서 압연기를 거쳐 늘어난 철 덩어리. 가열로에 넣어 1250℃에서 재가열한 철 덩어리를 압연기에서 한 번만 왔다갔다해도 최대 12m가량 되던 길이가 평균 1km, 최대 2.5km까지 늘어난다.

▶ 110m로 일정하게 잘린 철근. 철근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인 반제품(빌렛)은 가열과 총 18단계의 압연과정을 거쳐 굉장히 얇고 길어진다.



여의도 3배 면적... 연간 2000만 톤 원재료 철광석 수입 7개 밀폐형 돔시설...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최소화 제강, 열연·냉연 강판, 압연 등 철강생산 일류 기술력 갖춰

저장시설로 독일 포모사가 화력발전소에 적용하기 위해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일반적인 해외 일관제철소는 원료를 밖에 쌓아놓는다. 이 경우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비산먼지가 발생해 환경오염 일으킬 수 있다. 반면 밀폐형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수분 관리를 통해 원료를 최적화된 상태에서 보관할 수 있다.

높이 60m, 직경 120m의 철광석 저장돔에 들어가면 천장을 뚫고 들어온 컨베이어 벨트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업무의 80%는 전자동화로 이뤄진다. 철광석이 돔 안으로 들어오면, 컨베이어 벨트 센서가 인식해 철광석을 떨어뜨려야 할 위치, 방향을 조정하며 적정 위치까지 이동시킨 다음 자유낙하시킨다.

보관 돔 1개에는 무려 32만 톤의 철광석을 한 달간 보관 가능하다. 특히 밀폐형 돔은 바닥이 좀 기울어져 있어 벽에 기대는 식으로 쌓이는 철광석은 무려 최대 31m까지 높게 적재될 수 있다.

철광석은 고로까지 연결돼 있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이동한다. 고로에서 철광석을 녹인 쇳물(용선)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강공정까지 기차(토펬도카)로 천천히 옮겨진다. 1량당 무려 320톤을 실을 수 있으며 1530℃에 달하는 엄청나게 뜨거운 쇳물 온도를 담아낸 양은 2400℃까지도 견뎌낼 수 있다.

◇열연강판 1개 만드는 데 3분도 안 걸려 = 제강공장에서 생산된 쇳물은 연속 주조 방식을 통해 중간소재(슬래브)로 만들어진 후 열연공장으로 보내진다. 철 덩어리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 냉각과 가열을 반복한다.

당진제철소는 총 3개의 열연공장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개파를 갖춘 열연 2공장을 둘러봤다. 이 공장은 연간 550만 톤, 하루 평균 602개를 생산해낸다. 한 개의 코일을 만드는 데 3분도 안 걸리는 셈이다.

열연공장에서 작업은 정말 순식간이었다. 식은 철 덩어리를 가열로에 넣어 1250℃에서 재가열한 후 압연기에서 1

단계로 한 번 늘려준다. 한 번만 왔다갔다해도 최대 12m가량 되던 길이가 평균 1km, 최대 2.5km까지 늘어난다. 끝이 안 보인다.

이렇게 길어진 슬래브는 보다 정밀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두께와 길이에 맞게 한번 더 압연 과정을 거쳐 105m 길이의 급속 냉각기로 연결된다. 냉각을 하면 철판이 더 단단해진다. 코일을 돌돌 마는 건치기로 이동한다. 15초면 작업이 끝난다.

열연강판보다 표면이 매끄럽고 고급스러운 냉연강판 공장은 '철강제품의 꽃'이라 불릴 만큼 높은 기술력을 뽐냈다. 냉연공정은 말린 열연강판을 자동으로 풀어주고 식히는 작업부터 시작된다.

이어 '레이저 용접기'로 코일 끝과 다음 코일 처음 부분을 이어준다. 염산으로 깨끗하게 세척하고 바람으로 말린 후 상온 압연기를 거치면 다시 돌돌 말아 도금 전 단계인 중간제품(폴하드)이 탄생한다.

25톤에 달하는 폴하드는 바닥에 깔려 있는 레일 덕분에 이 넓은 공장 내에서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코일을 풀어서 용접, 압연, 세척을 거친다. 도금을 위한 사전작업이다. 아연 등의 도금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완제품이 된다.

◇세계 수출 1위의 산실, 연간 130만 톤 생산 '철강공장' = 현대제철은 철근, 향강

등 봉형강 수출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회사다. 연간 수출 물량은 약 140만 톤으로 1조17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봉형강 중 연간 120만~130만 톤을 생산하는 철근공장에 가봤다. 붉은 쇳물이 팔팔 쏟아져 내려오면 곧바로 냉각시킨다. 12m 길이의 젓가락 모양으로 자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만들어진 80여 개의 반제품(빌렛)들은 1000~1100℃의 가열로에서 뜨겁게 달구진다.

달구진 빌렛은 총 18단계에 걸쳐 압연을 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10mm, 13mm, 16mm, 19mm, 22mm 총 5가지 두께의 철근을 생산하는데, 일정 기간을 정해 한 가지씩 생산한다. 가장 얇은 10mm, 13mm는 15~18단계에서 총 4갈래로 쪼개지며 더욱 얇아진다. 마지막 18단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정한 간격의 마디가 생긴다.

냉각 과정을 거친 후 110mm씩 잘려진 철근들은 호위대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행진하듯 하나씩 자동으로 옆으로 이동한다. 고객의 니즈에 맞게 잘려진 철근은 일정 무게(최대 2톤)만큼 묶어준 후 적재된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철근 더미다.

수시간에 걸쳐 돌아본 당진제철소는 단순한 제조공장이 아닌 최다 세계 일류산품을 보유한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산실이었다. 당진=하유미 기자 jscs508@

“한조각의 찌꺼기도 안 버려요”... 자원순환형 ‘친환경’ 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추구하는 목표는 '세계 유일의 자원순환형 사업구조'다. 철강 제품의 찌꺼기조차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춘 상태다.

당진제철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쇳물을 만들기 위해 고로(용광로)와 전기로 방식을 모두 가동한다.

우선 철광석과 석탄을 고로에 녹인 쇳물이 열연과 냉연강판으로 탄생하면 자

폐차·생산과정 부산물 등 녹여 건설용 철근·시멘트로 재탄생 리사이클링 비율 99% 달해

동차 강판 등에 사용된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자동차는 리사이클링 센터를 거쳐 폐차 처리를 통해 철 스크랩(고철)으로 만들어진다.

고철은 전기로를 통해 가열을 거쳐 다시 한번 H형강, 철근 등으로 되살아난다. 이 제품들은 토목 건설 등에 활용된다.

열연, 냉연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도 전기로를 통해 다시 향강 제품으로 재탄생되며, 쇳물과 슬래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인 철강슬래그 역시 시멘트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곳에서의 리사이클링 비율은 무려 99%가량이나 된다.

당진제철소는 눈에 보이는 찌꺼기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생가스도 함부로 날려 버리지 않는다. 부생가스는 고로에서는 물론 철광석을 녹인 쇳물(용선)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강 공정 중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다.

이 가스를 다시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제철소의 전력으로 공급한다. 실제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당진제철소에는 모든 공장이 노란색 파이프로

끊임없이 연결돼 있다.

이 파이프를 통해 부생가스가 이동해 발전기까지 도착하는 구조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전력은 연간 550만 mw로 수원지에서 1년간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에너지다. 이 정도면 당진제철소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량의 80% 가량을 충당할 수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 같은 자원순환형 구조는 친환경 제철소로 거듭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활용 기술을 통해 비용절감 등 경제적인 측면도 개선시킬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당진=하유미 기자 jscs508@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기승전 수익률!
이것이 신한을 선택해야하는 이유

2019년 3분기 연속 개인형 IRP 수익률 1위

(은행연합회 원리금보장상품 및 원리금비보장상품 합산 수익률 공시자료_ 해당분기말 직전1년기준)

신한은행 IRP



2019년
개인형 IRP
**수익률
1위!**

(은행연합회 원리금보장상품 및 원리금비보장상품 합산 수익률 공시자료_ 해당분기말 직전1년기준)

2019년
고용노동부 사업자평가
**수익률
우수사업자
선정!**

(수익률 원리금 비보장부문 기준)

빨리 가입할수록
**수수료
추가할인!**

(만34세 이하 신규가입시)

최대
115만 5천원
**연말정산
혜택!**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별도의 중도해지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중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의 기준과 면세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 참조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5137호(2019-12-13~2020-03-31)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19-2-3507호(2019.12.11~2020.03.31)

5G·AI·모빌리티... 일상 스며든 기술혁신 한자리에

CES 2주 앞으로

내년 1월 美 라스베이거스서 열려
4500개 기업 참가 기술 향연 펼쳐

‘인공지능(AI), 5G(5세대 이동 통신), 모빌리티’. 2주 앞으로 다가온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20’에서 기대되는 주요 화두다. 특히 올해부터 상용화된 5G 기술을 바탕으로 한 구체화한 비즈니스 모델이 공개될 것이라 기대감도 높다.

내년 1월 7~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이 박람회에는 총 45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기술 향연을 펼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모든 이동사는 5G 상용화를 완료했고, 영국과 스페인, 스위스 등 유럽 주요 국가도 5G 상용 서비스에 돌입했다. 일본은 내년 상반기에 5G 상용화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중국 역시 5G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글로벌 5G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5G는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AI 등 CES 2020 핵심 주제들의 근간이다.

자율주행차나 스마트시티 등은 결국 5G 네트워크가 있어야 안전하게 구동될 수 있다. 5G 네트워크에선 통신을 시작하는 데 걸리는 지연 시간이 극도로 짧다. 이런 5G의 특성은 로봇 원격제어, 자율주행차, 양



인공지능 LG 씽큐가 일상을 변화시키는 모습.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의류의 오염상태를 파악해 자동으로 세탁코스를 설정해주는 트롬 세탁기, 식재료를 감지해 적절한 요리 레시피를 추천해주는 디오스 냉장고,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클로이 로봇, 자동차 창문을 통해 목적지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미래차 사진제공 LG전자

스마트시티·로봇·자율주행차 등
5G 기반 혁신 서비스 핵심 주제로

LG ‘집 안팎 경계 허문’ AI솔루션
현대차는 ‘하늘 나는 자동차’ 공개

방향 게임 등 네트워크의 실시간 반응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힘을 발휘한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율주행차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4G 환경에선 차가 1m 이상 주행한 후 긴급제동 명령을 수신한다. 반면, 5G 환경에서는 불과 3cm도 진



현대차의 ‘UAM 전략’ 담은 CES 2020 티저 이미지.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행하지 않고 정지신호를 받는다.

또 5G 네트워크는 1km²면적 안에서 100만 개의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대량 연결은 각종 스마트기기, 가전제품, 센서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사물인터넷(IoT) 장치들을 수용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업계 관계자는 “5G는 스마트홈, 스마트 시티, VR·AR(가상·증강현실)을 구현하고, 로봇과 자율주행차를 고도화시킬 핵심 요소”라며 “기업들이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서비스를 공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CES에서는 진화된 AI 기술도 대거 공개된다. LG전자는 AI 기반의 혁신으로 한층 편리해지는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이기 위해 ‘어디서든 내 집처럼(Anywhere is home)’을 주제로 ‘LG 씽큐(ThinQ) 존’을 대규모로 꾸민다.

집 안팎의 경계를 허물고 인공지능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서로 연결해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LG 씽큐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G 씽큐 존은 △집 안에서 누리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소개하는 ‘LG 씽큐 홈(LG ThinQ Home)’ △이동수단에서의 인공지능 경험을 보여주는 ‘커넥티드카 존’ △사용자와 닮은 3D 아바타에 옷을 입혀 보며 실제와 같은 가상 피팅을 경험할 수 있는 ‘씽큐 핏 컬렉션(ThinQ Fit Collection)’ △로봇을 활용한 다이닝 솔루션을 선보이는 ‘클로이 테이블(CLOi’s Table)’ 등으로 구성된다.

LG 씽큐 존은 LG전자 부스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전시 존이며 부스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LG전자는 글로벌 자동차시트 선두업체인 애디언트(Adient)와 손잡고 커넥티드

카 솔루션도 선보인다. LG전자가 webOS Auto(웹OS 오토)를 적용해 개발한 이 솔루션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람객들은 전시장에 마련된 커넥티드카 콘셉트의 전시용 차량 모형에 실제 탑승해 집에서 차량으로 이어지는 인공지능을 경험할 수 있다.

현대차는 CES에서 혁신적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공개한다.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은 △UAM(Urban Air Mobility·도심 항공 모빌리티) △PBV(Purpose Built Vehicle·목적 기반 모빌리티) △Hub(허브·모빌리티 환승 거점) 등 세 가지 구성 요소의 긴밀한 연결이 핵심이다. 먼저 UAM은 하늘을 새로운 이동의 통로로 활용하여 도로 혼잡을 줄이고 이용자에게 시간을 보다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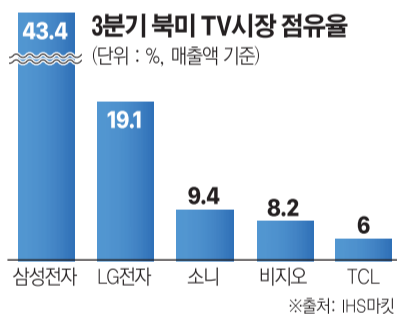
PBV는 한계 없는 개인화 설계 기반의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이동에 걸리는 시간 동안 탑승객은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 두 종류의 스마트 모빌리티를 보다 편리하고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래 도시 전역에 Hub를 배치함으로써, 서로 다른 형태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하나의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성하도록 했다.

CES 주최 측인 미국 소비자가전협회(CTA)는 “내년 CES는 이전과 달리 일상에 스며든 기술 혁신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권태성 기자 tskwon@

中 업체, 美시장 공략 본격화... 삼성·LG는 여유

콘카, 내년 3월 UHD TV 출시
CES 2020서 8K TV 선빌 듯
TCL·하이센스 등도 참가
“삼성·LG, 프리미엄 전략 유효”



중국이 세계 최대 TV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공격적 행보를 펼치고 있다.

자국 시장에 주력했던 TV 제조업체 콘카(Konka)는 내년부터 미국, 캐나다로 보폭을 넓힌다. 다른 중국 업체들은 내년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20’에서 최신 기술을 적용한 TV를 대거 선보인다.

북미 시장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 LG는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 선두 자리를 수성한다. 22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콘카는 이르면 내년 3월 북미 지역에 처음으로 4K UHD TV를 출시한다.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현지 경험이 있는 인력도 모집 중이다.

콘카는 CES 2020에도 참가한다. 행

사에서 4K UHD TV 외에도 8K TV, 마이크로LED(발광다이오드) 기술 등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TV 업체들은 최근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콘카 외에도 TCL, 하이얼, 하이센스는 내년 CES에 8K TV를 전시할 예정이다. TCL은 이미 올해 1분기 북미 TV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점유율 15%를 기록하며 삼성, LG를 바짝 뒤쫓았다.

중국의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삼성, LG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 북미 시장에서 프리미엄 TV를 통해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LG는 미국과 캐나다에 각각 QLED TV와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를 앞세우고 있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삼성 QLED 8K TV에 대해 “저화질 영상을 8K 영상 수준 고화질로 변환해주는 쿼텀 프로세서 인공지능(AI)을 채택했다”며 “전에 없던 최고의 QLED TV”라고 평가했다.

LG 올레드 TV에 대해서도 미국 IT 전문 매체인 씨넷(CNET)은 “완벽한 블랙 표현과 무한대의 명암비, 넓은 시야각을 갖춘 제품”이라며 “어떠한 LCD(액정표시장치) TV도 이 제품의 화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극찬했다.

중국 업체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기 위해 8K TV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일찌감치 북미 시장에 QLED 8K TV를 출시했다. LG전자는 올해 9월부터 미국에 8K 올레드 TV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SK에너지, 독거노인 보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받아

SK에너지의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이 인정받고 있다. 소외계층에 대한 단순 물질적 지원 등을 넘어서 사회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접근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천해왔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SK에너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 나눔의 장’ 행사에서 독거노인 보호 유공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017년 SK이노베이션, 2018년 SK중

합화학에 이은 SK이노베이션 계열 내 세 번째 수상이다.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사랑 나눔의 장’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다. 독거노인 보호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앞서 SK에너지는 11월 서울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 2019년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 행사에서 나눔파트너상을 받았다. 아울러 10월에는 SK에너지 물류경영실 자원봉사팀은 과천시가 주최한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노인복지 유공단체 부문 과천시장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기업 PR>

‘자율성 기반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앞장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여가부 선정 가족친화기업 인증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글로벌기업의 업무특성을 반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다양한 사내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앞세워 여성가족부가 뽑은 ‘가족친화 우수기업’에도 선정되는 등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추앙받고 있다.

2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열린 조직문화 및 사내제도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글로벌기업의 수평적 조직문화와 자율성을 앞세워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직원들이 일과 생활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반영하는 게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자기개발 및 역량강



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셈이다.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가족친화인증’도 받았다. 이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두산중 ‘소형모듈원전’ 사업 진출 가시화

美·英 시장 확대 전망에 향후13억 달러 규모 기자재 공급 예상

두산중공업이 소형 모듈원전 사업 진출을 구체화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국내 투자업체들과 함께 총 세 차례에 걸친 지분 투자를 통해 뉴스케일파워에 대한 주식 매매계약과 원자로 모듈 및 기타 기기 공급을 위한 사업협력계약을 마무리했다. 총 투자금액은 4400만 달러 규모다.

뉴스케일파워는 미국 에너지부(DOE)의 지원을 받아 소형모듈원전을 개발 중이다. 두산중공업은 올해 7월 뉴스케일파워와 원자로 모듈 일부 및 기타 기기 등을 공급하는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했다.

뉴스케일파워는 발전사 UAMPS가 2026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미국 아이다호주에 준비하고 있는 첫 소형 원전 프로젝

트에 소형 모듈원전을 공급할 예정이다.

나기용 두산중공업 원자력BG장은 “지분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설계인증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돼 소형 모듈원전 사업에 대한 전망이 밝다”면서 “이번 협력을 통해 미국 원전 시장을 비롯해 캐나다, 영국 등으로의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소형 원전모듈 협력으로 미국 내 후속 프로젝트와 세계 시장 확대를 고려, 최소 13억 달러 규모의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기승 기자 kissong@

“내년 ‘자상한 기업’ 12곳 추가… 일자리 2만 개 창출”

중기부 ‘자상한 기업의 밤’ 감사 행사

삼성전자 등 10개 기업에 감사패 전달… 사업 성과 공유
내년 5조4000억 규모 펀드 조성… 신산업·벤처 투자
정부포상 우대·성장평가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올 5월 시작한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발굴사업인 ‘자상한 기업’을 통해 발굴된 기업이 10곳에 달했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자상한 기업은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의 강점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협력사·미거래 기업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뜻한다. 올 5월 네이버를 시작으로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소프트뱅크벤처스, 삼성전자, KEB하나은행,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기아자동차 등 10곳이 선정됐다.

삼성전자, 포스코, 네이버 등은 미거래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상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해 상호발전을 위해 돕는 상생과,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공존을 직접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와 포스코는 스마트공장을 미거래 기업 대상으로 지원했고 네이버는 파트너스퀘어 종로점과 홍대점을 개소하는 등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하기도 했다.

KB국민은행은 외식업중앙회 40개 지회와 13개 소호컨설팅 센터를 서로 매칭해 무료 컨설팅과 함께 유명 셰프가 지도하는 윈데이 클래스를 함께 운영하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은행과 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 금융컨설팅 지원과 함께 전용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체육행사도 개최하는 등 상호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담 사례(감사편지 등)가 속출하고 있다.



박영선(왼쪽) 중기부 장관이 20일 ‘자상한 기업의 밤’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자상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우선 시스템반도체, 미래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등 신산업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5조4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약 2만1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상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참여 기업별 특색에 맞는

성과와 우수사례를 ‘가지삼시다 TV’에 등록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자상한 기업에 정부 포상 우대와 함께 동반성장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시에도 우대 가점을 신설할 계획이다. 자상한 기업이 숙박시설 등

현물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 세제 혜택(10%)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2020년에 개정할 계획이다.

전용 보안검색대를 통한 신속한 출입국이 이루어지는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2년) 혜택도 지원하는 한편,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2년 면제, 모태 펀드와 자상한 기업이 함께 조성하는 상생펀드 확대, 상생형 정부 사업 전시 우선매칭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중기부는 2020년에도 총 12개 기업을 목표로 자상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자상한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별 특색에 맞는 성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20일 그간 자상한 기업들이 활동한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고, 성과 확산과 함께 자상한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자상한 기업의 밤’ 감사 행사를 열기도 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셀메이트 “맞춤형 인재 ‘NCS 컨설팅’으로 찾았죠”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메인비즈협회 컨설팅 참여… 직무 중심 인사시스템 구축
블라인드 채용 통해 여성 개발자 비중 2배 이상 높아져
올해 ‘NCS 기업활용 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국내 중소기업들이 ‘NCS컨설팅’ 도입으로 좋은 직원 채용에 특화된 효과를 보고 있다.

대표적 업체인 ㈜셀메이트는 2013년 8월 설립한 기업으로 주문부터 재고, 거래처, CS, 통계 등의 쇼핑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쇼핑물 통합 관리 솔루션 제공 기업이다. 안다르, 제시믹스, 슈 같은 빅셀러들도 셀메이트의 제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2018년 매출은 22억 원, 2019년에는 30억 원, 2020년엔 4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셀메이트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었으나 업계 특성상 잦은 이직과 수시 채용에 따른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인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요구가 상당했다. 오래 일한 직원이

늘어날수록 직급별 직무교육 프로그램 및 경력개발 등 회사와 직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체계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셀메이트는 2016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도제학교 협약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라는 제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한국경영학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2019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사에 맞는 직무 중심의 채용 및 재직자 교육훈련 과정을 마련해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자 컨설팅에 참여하게 됐다.

NCS컨설팅에 참여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그렇듯 셀메이트 역시 NCS 컨설팅 전담인력이 없어 전사적 차원에서 NCS를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기존에 개발된 NCS 직무 중 셀메이트에 필요



서원준 대표

한 직무능력단위가 개발돼 있지 않아 NCS 컨설팅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직원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담당 컨설턴트와 셀메이트 인사담당

자는 NCS 도입이 왜 필요한지, NCS를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사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했고, 임직원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셀메이트에 맞는 직무능력단위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게 됐다. 셀메이트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직무능력단위는 가상환경 구축, 가상환경 운영, 가상화 컨테이너 구현, 가상화 컨테이너 활용 총 4가지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NCS직무를 개발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성과다.

2019년에는 NCS 컨설팅을 통해 새롭게 개발한 직무설명 자료를 만들어 지원자에게 정확한 직무정보를 제공했고, 직무

중심의 입사자 지원서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격사항, 역량 등을 기술하는 등 셀메이트에 맞는 채용과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응용 SW 엔지니어링 직무에 맞는 능력과 역량만으로 평가해 2019년 총 2명의 개발자를 채용했다. 성별 등의 차별요소 없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만을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함으로써 여성 개발자의 비중이 2배 이상 높아지는 효과(12% → 25%)도 거뒀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셀메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2019 NCS 기업활용 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셀메이트는 NCS 컨설팅이 직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에 맞는 채용과정을 설계함으로써 회사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해주며, 채용직원의 업무 만족도와 몰입도를 높이는 등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는 좋은 제도라는 평가다. 셀메이트는 올해 컨설팅을 통해 개발한 3개 직무 외에 타 직무에도 NCS를 적용하는 등 직무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NCS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재훈 기자 yes@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소진공, 내년 847곳 지원
4705억 투입…11.7% 증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내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847곳을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9월에 2020년 지원대상 후보 시장을 선정한 이후의 후속 조치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1.7%(494억 원) 증액된 4705억 원 규모다.

우선 소진공은 온라인쇼핑 확대에 기인한 고객 감소에 대응해 역사·문화·관광 등 지역 고유 자원과 연계해 고객 유입을 촉진하는 특성화시장 141곳(293억 원)을 육성한다. 또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을 포함한 낙후된 구도심 상권 전체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기존 선정지를 포함해 총 13곳(113억 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젊은 고객 유입 촉진,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시장·상권·고객 특성에 맞춘 혁신형 복합 청년몰 3곳을 포함, 청년상인 육성에 총 134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운누리상품권 발행액도 작년 대비 5000억 원 증액한 2조 5000억 원 규모로 늘려잡았다.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으로 360여 곳(141억 원)을 지원한다. 또 전통시장 이용 고객들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개보수 96곳 등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총 1424억 원을 지원한다.

소진공은 전통시장 내 불거리, 길거리 등 ‘1시장 1특색’을 발굴하고, 고객 유입 촉진을 위한 전통시장 투어상품 개발과 함께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전통시장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과기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 개선… ‘무정산’ 구간 설정

OTT·가상현실·증강현실 등 혁신 신규서비스 활성화 기대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대형 통신사(ISP) 간 트래픽 교환비용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 정산하지 않도록 무정산 구간이 설정됐다. 인터넷망 상호 접속은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인터넷 시장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형 통신사 간에는 트래픽 교환비용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 정산하지 않도록 ‘접속료 정산제’의 구간(무정산 구간)을 설정한다. 무정산 구간은 과기정통부가 시장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하한수준을 결정하게 되며, 현행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용의 최대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1대 1.8로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1년간 대형 통신사 간 월별 트래픽 교환비용은 모두 1대 1.5를 하회하며, 무정산 구간이 1대 1.8로 설정되면 통신사가

타사로 발신하는 트래픽이 상당 수준 늘더라도 접속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무정산 구간 설정으로 통신사가 접속비용 없이 CP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CP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OTT,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를 부담 없이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통신사(중계사업자, CATV사 등)의 접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접속통신 요금을 인하하고, 사업자 간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요금 등급을 달리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접속통신 요금은 매년 요금

별로 동일한 비율로 내렸으나 요금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별로 인하율을 달리 설정하고, 연간 최대 30%(중계접속 요금) 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속통신 요금 상한과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용을 공개하고, 업계와 협의해 망 이용대가 추이를 수집·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통신사뿐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만든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강점인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동반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조국 파문’ 갈라진 민심... 뚝뚝 뭉친 ‘日제품 불매’

‘美·中 갈등’ 화해 기류... 노딜로 치닫는 브렉시트



국내 뉴스

대형 사건과 이슈가 끊이지 않았던 2019년을 '사진으로 보는 올해 국내 10대 뉴스'를 통해 되짚어 본다. 올해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북핵 위기가 다시 고조됐고 한일 무역 갈등, 수출 급락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우울한 한 해를 보냈다. 특히 '조국 사태'로 인한 정치권 공방을 넘어 국민 갈등 확산은 우리 사회의 우울한 그림자를 남겼다. 또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손실 사태, 서울 집값 고공행진과 청약시장 전쟁으로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나 '한강의 기적'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1·2세대 기업인의 잇따른 부고 소식도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줬다. 하지만 세계 첫 5G 상용화나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시대 개막 소식은 지쳐 있는 국민에게 한 줄기 위안과 자부심을 심어줬다.

- 1 조국사태
- 2 '미친 집값' 평당 1억 시대
- 3 한일 무역갈등
- 4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올 하반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찬반으로 여담과 야당이 정치 공방을 넘어 '광장 정치'로 옮겨붙으면서 극단적인 국민분열이 일어났다. 특히 검찰개혁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 특혜,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에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이를 두고 여론이 양분되는 모습도 보였다. 이후 조국 사태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검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허명수 수사 의혹 등으로 번지면서 양측 모두 서로 몰려갈 수 없는 벼랑 끝에 서게 됐다.

올 한 해 서울 집값과 청약시장은 전성기였다. 신기루처럼 여겼던 3.3㎡당 1억 원 시대(사채)가 초구 반포동 '이크로 리버파크'가 열렸고, 최고 청약경쟁률은 1000대 1(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최고 1123대 1을 넘었다. 민간택지 분양가가 상한제 시행으로 시장 과열은 심해졌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이익 창출이 어려운 건설사들은 공급을 줄이고, 분양가가 낮아진 분양시장에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집을 장만해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폭발한 것이다.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일본 정부는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한일관계 악화로 국내에서는 지난 여름부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촉발돼 그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질 정도로 장기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국산화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는 등 국내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 사법부의 전직 수장이 구속기소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퇴임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삼고검 도입을 위해 정부 헌정재판 기법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검찰 신청 증인만 2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지리 화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는 등 국내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국제 뉴스

미·중 무역전쟁과 홍콩 시위 사태, 브렉시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탄핵 정국에 이르기까지 2019년은 불확실성과 분열, 갈등의 한 해였다. 새해를 앞두고 미·중이 1단계 무역합의에 이르는 등 1년 내내 세계를 요동치게 했던 이슈들이 일부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던 내년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여성 리더 시대를 맞이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코는 석유시설 파괴 충격을 받고 세계 최대 기업공개(IPO) 기록을 세웠다. '21세기 빈 라덴'으로 불렸던 알 바그다디가 사망한 것도 화제를 모았다. 올해는 기후변화가 더욱 심해져 기상이변에 신음해야 했다. 인류 문화 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에 무너져 전 세계적인 탄식을 자아냈다. '돼지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아시아 각국이 진풍경을 겪었다.

- 1 미·중 무역전쟁
- 2 홍콩 초유의 '反中 시위'
- 3 "브렉시트 연기는 없다"
- 4 트럼프 탄핵안美 하원 통과

세계 주요 27개국(G2)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올해에도 글로벌 경제와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G2가 무역분쟁을 벌이면서 화해와 갈등을 끊임없이 반복하자 시장도 천당과 지옥을 등 돌리며 불안해하고 있다. 6개월이 넘는 시위 사태에 10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시했다.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0%로,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3일 극적으로 1단계 무역합의를 도출했지만 내년 상황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홍콩에서 6월 9일(현지시간)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거리를 가득 메우며 정부의 법치인도법(송환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무역전쟁 여파로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시했다.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0%로,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3일 극적으로 1단계 무역합의를 도출했지만 내년 상황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올해에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를 놓고 파란만장한 드라마가 펼쳐졌다. 브렉시트 시행 일자리는 올해 3월 말에서 10월 말, 내년 1월 말 등 무려 3차례나 연기됐다. 보리스 존슨은 브렉시트 절대 시행을 내걸며 7월 총리직에 취임했으나 잇따라 자신의 합의안이 부결되자 조기 총선 승부수를 걸었다. 12월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인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내년 1월 말 브렉시트 시행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나 브렉시트를 둘러싼 드러마는 내년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2월 18일(현지시간)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로 트럼프는 역대 세 번째로 미국 하원에서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트럼프가 자신의 라이벌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박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7월 타지면서 탄핵 조사 격랑에 휘말렸던 것으로 보인다.

5 별이 된 산업 선구자들



'한강의 기적'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1·2세대 기업인들이 역사 속으로 떠났다. LG를 '한국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은 구자경 LG 명예회장이 12월 14일 타계했다. 이보다 닷새 앞선 9일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부고도 전해졌다. 대한항공을 글로벌 선도 항공사로 거듭나게 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지난해 4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 6 세계 첫 5G 상용화
- 7 DLF 투자손실 사태
- 8 '수출 급락' 하강하는 경제
- 9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 10 폴더블폰 시대 열렸다

올해 하반기 국내 은행권은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의 대규모 손실로 떠들썩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는 총 7950억 원 규모가 판매된 한국을 뒤흔어오게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동시에 정부는 5G통신에서 파생되는 각종 산업용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2026년 세계시장의 15%를 점유하고 73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이다.

수출은 '임축기' 그 자체였다. 작년 12월 -1.7%를 시작으로 12개월간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 속에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석유화학 단가가 낮아진 요인이 크다. 2015년 1월~2016년 7월 19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기간 미미나스 행진이다. 특히 6월부터는 6개월간 두 자릿수 감소율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내세웠던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도 실패했다.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에 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 방식을 두고 미국은 '빅딜'(일괄 타결식 완전 합의), 북한은 '스물달'(단계적 타결식 부분 합의)을 주장했지만 결국 회담이 만족으로 접히는 인플레이션 방식 이후를 좀처럼 못하고 나섰고, 특히 6월부터는 6개월간 두 자릿수 감소율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내세웠던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도 실패했다.

한동안 정체됐던 스마트폰 시장이 '폴더블 폰'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폴더블폰은 접었을 때는 스마트폰, 펼쳤을 때는 태블릿의 경험을 선사하는 제품이다. 올해 출시됐던 제품 중 단연 돋보였던 것은 삼성의 갤럭시 Z 폴드였다. 화면이 안쪽으로 접히는 인플레이션 방식 이후를 좀처럼 못하고 나섰고, 특히 6월부터는 6개월간 두 자릿수 감소율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내세웠던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도 실패했다.

5 글로벌 금융기관 여성리더 시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2월 19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왼쪽). 왼쪽 사진은 크리스틴 라가르드(왼쪽)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2월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리스본조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나란히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9년은 '여성리더'가 빛을 발한 한 해였다. 특히 10월 게오르기예바가 IMF 총재에 공식 취임한 데 이어, 11월 라가르드가 유럽중앙은행(ECB) 최초로 여성 수장으로 부임하면서 전 세계 금융기관에서의 '여성 리더' 시대를 열었다. 아울러 12월에는 폰데어라이엔이 이끄는 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뜻을 올리면서 EU의 정치·경제를 사상 최초로 여성 투톱이 이끌게 됐다.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4월 15일 석유시설을 공격당하는 악재를 맞았지만 12월 사상 최대 규모 IPO에 성공했다. 지분의 1.5%만 불렀지만 256억 달러로 2014년 일리바버를 제치고 사상 최대 IPO 기록을 세웠으며 시가 총액 역시 1조7000억 달러(공모가 기준)로 기존 최대인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됐다. 사우디 주식시장(타다)에서 거래를 시작한 아라코의 주가는 상장까지 급등해더니 장 마감까지 주가를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스웨덴의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9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연설 도중 세계 정치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올해 유례 없는 기상이변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은 가운데 기후행동운동가 툰베리가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툰베리는 9월 유엔(UN) 총회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에서 세계 정상들을 향해 기후변화 화가 심각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쓰러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후행동 촉구했다. 툰베리를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미군에 쫓기다 자살폭발로 사망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의 우두머리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의 생전 모습이다. 미국 특수부대가 있는 알 바그다디 은신처를 급습해 적인 데 이어 환경운동가 툰베리가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툰베리는 9월 유엔(UN) 총회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에서 세계 정상들을 향해 기후변화 화가 심각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쓰러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후행동 촉구했다. 툰베리를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6 세계 첫 5G 상용화

7 DLF 투자손실 사태

8 '수출 급락' 하강하는 경제

9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10 폴더블폰 시대 열렸다

6 사우디아라코 상장

7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8 소녀 환경운동가 툰베리 부상

9 'IS 수괴' 알 바그다디 사망

10 아프리카돼지열병 강타

4월 3일 23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각각 1호 가입자를 대상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한국은 이로써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국가가 됐다. 정부는 세계 시장을 선점해 경쟁국들이 한국을 뒤쫓아오게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동시에 정부는 5G통신에서 파생되는 각종 산업용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2026년 세계시장의 15%를 점유하고 73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 국내 은행권은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의 대규모 손실로 떠들썩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는 총 7950억 원 규모가 판매된 한국을 뒤흔어오게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동시에 정부는 5G통신에서 파생되는 각종 산업용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2026년 세계시장의 15%를 점유하고 73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이다.

수출은 '임축기' 그 자체였다. 작년 12월 -1.7%를 시작으로 12개월간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 속에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석유화학 단가가 낮아진 요인이 크다. 2015년 1월~2016년 7월 19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기간 미미나스 행진이다. 특히 6월부터는 6개월간 두 자릿수 감소율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내세웠던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도 실패했다.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에 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 방식을 두고 미국은 '빅딜'(일괄 타결식 완전 합의), 북한은 '스물달'(단계적 타결식 부분 합의)을 주장했지만 결국 회담이 만족으로 접히는 인플레이션 방식 이후를 좀처럼 못하고 나섰고, 특히 6월부터는 6개월간 두 자릿수 감소율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내세웠던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도 실패했다.

한동안 정체됐던 스마트폰 시장이 '폴더블 폰'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폴더블폰은 접었을 때는 스마트폰, 펼쳤을 때는 태블릿의 경험을 선사하는 제품이다. 올해 출시됐던 제품 중 단연 돋보였던 것은 삼성의 갤럭시 Z 폴드였다. 화면이 안쪽으로 접히는 인플레이션 방식 이후를 좀처럼 못하고 나섰고, 특히 6월부터는 6개월간 두 자릿수 감소율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내세웠던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도 실패했다.

'왕관의 보석'으로 불리는 아라코는 9월 핵심 석유시설을 공격당하는 악재를 맞았지만 12월 사상 최대 규모 IPO에 성공했다. 지분의 1.5%만 불렀지만 256억 달러로 2014년 일리바버를 제치고 사상 최대 IPO 기록을 세웠으며 시가 총액 역시 1조7000억 달러(공모가 기준)로 기존 최대인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됐다. 사우디 주식시장(타다)에서 거래를 시작한 아라코의 주가는 상장까지 급등해더니 장 마감까지 주가를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4월 15일 석유시설을 공격당하는 악재를 맞았지만 12월 사상 최대 규모 IPO에 성공했다. 지분의 1.5%만 불렀지만 256억 달러로 2014년 일리바버를 제치고 사상 최대 IPO 기록을 세웠으며 시가 총액 역시 1조7000억 달러(공모가 기준)로 기존 최대인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됐다. 사우디 주식시장(타다)에서 거래를 시작한 아라코의 주가는 상장까지 급등해더니 장 마감까지 주가를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스웨덴의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9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연설 도중 세계 정치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올해 유례 없는 기상이변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은 가운데 기후행동운동가 툰베리가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툰베리는 9월 유엔(UN) 총회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에서 세계 정상들을 향해 기후변화 화가 심각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쓰러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후행동 촉구했다. 툰베리를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미군에 쫓기다 자살폭발로 사망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의 우두머리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의 생전 모습이다. 미국 특수부대가 있는 알 바그다디 은신처를 급습해 적인 데 이어 환경운동가 툰베리가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툰베리는 9월 유엔(UN) 총회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에서 세계 정상들을 향해 기후변화 화가 심각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쓰러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후행동 촉구했다. 툰베리를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확진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여파는 올해 중국을 집어삼켰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전국 양돈장에서 사육 두수가 40% 가까이 감소했다. 사육돼지 급감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치솟았다. ASF 발생으로 중국에서 11월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10%나 뛰었다. ASF는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북한,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퍼져 아시아 전체가 공포에 떨어왔다.

“카톡보다 싸고 다양” 이커머스 ‘선물하기’ 강화

티몬 메리크리스마스 기획전
무료배송·10% 적립 등 혜택
쓱닷컴 전문관 꾸러 상품 확대
업계 소비 성수기 잡기 전쟁음



티몬 '선물하기' 서비스

이커머스 업체들이 '선물하기' 기능을 강화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선물 시즌을 노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달 20일부터 '선물하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선물할 수 있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상품을 고르고 선물 버튼을 누른 후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와 메시지를 입력하고 결제하면 된다.

수신자는 선물 알림을 받은 후 배송지를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발신자가 받는 사람의 주소를 알지 못해도 선물할 수 있다. 배송지 입력을 위한 선물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이는 3일 이내 주소를 기입하지 않으면 해당 주문 건은 자동 취소되고 발신자에게 환불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송신자와 수신자는 모두 티몬 회원이어야 하고 앱을 사용해야 한다. 선물 문자 메시지를 받은 시점에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가입한 후 주소를 기입할 수 있다.

티몬은 성탄절을 맞아 '메리크리스마스' 기획전을 통해 전 상품 무료배송 및 살 때마다 10%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연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아르마니 남녀 커플 메탈시계 세트(AR90004)'는 정가 대비 50% 저렴한 41만9000원에 선보이고, 부모님 선물로 적합한 '시카고헬스 데일리 루테인 파워'는 88% 할인한 1만1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CJENM 오쇼핑이 운영하는 CJmall도 지난해 12월 '선물하기'의 시범 서비스를 도입했고 올해부터 정식으로 운영 중인

다. 이 서비스도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선물을 보낼 수 있다. CJmall의 일부 상품 카테고리를 제외하고 약 300만 개 상품에 대해 서비스를 적용 중이다. 론칭 첫 달인 1월에는 소비자 이용 건수가 4000건에 육박했고, 현재는 월평균 1500건에 이를 정도로 자리 잡았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24일까지 '크리스마스 선물왔스'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 상품으로 '디즈니 프린세스 미들 돌 엘사 헤어플레이세트'는 정가 대비 20% 저렴한 4만 원에 선보이고, '프레시지 블랙라벨 스테이크 2인분 쿠킹박스'는 39% 할인된 1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SSG닷컴은 2016년 7월부터 700만 개에 이르는 상품에 대해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선물조르기' 기능까지 갖춰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화면에서 바로 결제하고 선물할 수 있다.

이달 중순부터는 전문관을 따로 꾸러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관에는 커피, 케이크, 외식상품 등 모바일 쿠폰을 손쉽게 선물할 수 있도록 코너를 만들고, 신세

계백화점에 입점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쓱콘' 상품도 늘렸다. '고정테마'와 '크리스마스, 신년 등 '시즌테마' 등의 선물을 제안하는 큐레이션 기능도 갖췄다.

특히 25일까지 '선물하기' 전문관 신설을 기념해 선물하기 이용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키엘 수분크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SSG닷컴 관계자는 "선물하기는 지난해에만 100% 넘는 성장세를 기록했고, 이달 15일 기준으로 51%가 넘게 성장해 전문점 확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선물하기' 서비스는 카카오톡이 강자다. 대화 상대에게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쿠폰을 비롯해 상품이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직접 보내거나 쿠폰 등을 전달할 수 있다. 간편성과 편리성을 앞세워 올해 3분기에도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42%가량 늘어 성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이커머스의 무기는 할인 폭과 다양한 품목이다. 카카오톡은 제조사와 제휴를 통해 운영되는 식으로 특정 상품에 한정돼 있고 할인이 거의 없지만, 이커머스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통상 판매하는 수준의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취급하는 대부분의 상품을 선물할 수 있다.

이커머스로서는 '선물하기' 서비스를 도입해 크리스마스와 연휴, 설 명절까지 이어지는 소비 성수기에 매출 증가 효과를 노린 의도가 크다. 또한 선물을 받으려면 자사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고, 앱을 설치해야 하는 만큼 신규 고객 유치 효과도 쏠쏠하다. 플랫폼 내 검색을 유도해 체류 시간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티몬 관계자는 "우리 '선물하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데다 품목이 다양하다는 점"이라면서 "앞으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티켓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했습니다



'억' 소리 나는 나전칠기 가구

롯데백화점은 31일까지 서울 소공동 본점 8층 '이도아틀리에'에서 나전·옷칠 작품으로 유명한 '나은 크라프트'의 대표 작품을 전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약 2년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완성된 2억 원 상당의 왕실 전통가구 '주칠십장생문 5층장'을 비롯해 '흑칠모란당초문 혼수함(1400만 원)', '주백칠동혼수함(1600만 원)' 등 20여 개 혼례용품과 선물용품 등을 고객들에게 소개한다. 사진제공 롯데쇼핑

롯데마트, 印尼 50호점 오픈

2023년까지 100호점 목표

롯데마트가 인도네시아 50호점을 연다. 롯데마트는 19일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Java)지역 북서부에 있는 뜨갈(Tegal)시에 인도네시아 50호점이자, 글로벌 188호점인 '뜨갈(Tegal)점'을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27일 인도네시아 48호점인 '짜마히점'을 오픈한 데 이어 12일에는 100만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 보고르시에 인도네시아 49호점인 '빠간사리점'을 열었다. 이번 '뜨갈점' 오픈으로 인도네시아에 50호점 달성에 성공했다.

인구 약 24만 명의 중소 도시인 뜨갈시는 생활의 주요 산지로서 농산물을 각 도시로 운송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물류 거점 도시다. 특히 '와르텍(Warteg)'이라고 하는 길거리 음식 문화가 발달한 도시이기도 하다. '뜨갈점'은 '와르텍(Warteg)'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위해 신선식품을 확대 및 강화해 특화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 10대 도시의 대형 점포를 중심으로, '뜨갈점'과 같은 2-3선의 지역 거점 도시를 연결해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완성하고자 한다.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로 투명성 확보를 꼽는다. 대지 확보부터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투명한 프로세스를 구축했고, 외국 기업이 아닌 현지 기업의 일원으로서 진정성을 인정받아 단시간에 50호점을 달성할 수 있었다.

롯데마트는 2023년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에 100개 수준으로 점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유통업계 또한 온라인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온·오프라인을 연결한 사업 시너지에도 중요한 감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소매사업 역시 신선식품과 밀솔루션(Meal-Solution)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공간 혁신을 통해 2020년에는 종전과 다른 프리미엄 콘셉트의 새로운 소매매장을 열 계획이다.

이하자 롯데마트 해외개발부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독자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론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소매뿐만 아니라 B2B 등을 아우르는 다채널 확보를 통해 고객들에게 롯데마트의 가치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기업 PR>

45돌 '투게더'의 이유있는 변신

1인 가구 공략 300ml 용량 출시

출시 45년 만에 파격 변신에 나선 빙그레 '투게더'가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빙그레 투게더는 1974년 출시 이후 황금색-비닐라맛·900ml 용량을 유지하며 누적 판매 개수 약 2억2000만 개, 연 매출 약 300억 원으로 떠먹는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아빠', '가족'이란 콘셉트로 출시 이후 줄곧 가족용 900ml 대용량을 고집해 왔던 투게더는 최근 기존 제품 대비 3분의 1인 '투게더 미니어치'를 출시하고 1인 가구 공략에 나섰다. 투게더 오리지널의 레시피를 그대로 적용하고, 용량을 3분의 1(300ml)로 줄인 1인용 제품이다.

빙그레는 투게더 미니어치 출시에 맞춰 투게더를 활용한 팝업스토어 '투게더 피크닉하우스'를 운영했다. 투게더 피크닉 하우스는 팝업스토어로서는 이례적으로 19



일간 약 2만여 명이 다녀갔다. 인스타그램의 투게더 관련 해시태그는 1만4000여 개에 달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투게더는 국내 아이스크림의 대표 제품으로 오랜 기간 고객의 사랑을 받았다"며 "장수 브랜드로서 정체성은 지켜가되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출시하고 고객에게 새롭게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마케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욕 심장부에 뜬 한식... '비비고 QSR' 개점

CJ제일제당의 글로벌 한식 브랜드 '비비고'가 뉴욕 중심에 입성했다.

CJ제일제당은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록펠러 센터(Rockefeller center)에 '비비고 QSR(Quick Service Restaurant) 팝업(사진)'을 개점했다고 22일 밝혔다.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록펠러 센터는 유동인구가 많은 오피스 밀집 지역이자 세계적인 관광 명소다.

CJ제일제당도 '비비고'를 앞세워 록펠러 센터 프라자에 입점해 글로벌 업체인 블루보틀(Blue bottle), 스위트 그린(Sweet Green), 푸쿠(Fuku) 등과 함께 뉴욕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비비고 QSR'는 새로운 문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뉴욕커를 겨냥해 '비비고' 중심의 한국 식문화와 알리고자 전략적으로 기획한 식문화 공간이다. '비비고' 브랜드를 알리는 동시에 K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안테나숍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QSR'에서 메뉴에 대한 테스트 마케팅을 실시하고,

CJ제일제당, 맨해튼 록펠러 센터에 팝업 K푸드 저변 넓히는 안테나숍 역할 기대



소비자 반응을 살펴 한국 식문화 세계화라는 전략 로드맵에 적용할 계획이다. 매장은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유통사 바이어를 타겟으로 한 쇼케이스 매장으로도 활용해 동부지역의 유통 채널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미국 전역에 탄탄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수완스도 인수 후 본격적인 시너지를 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비비고 QSR'에서는 대표 K푸드 자리 잡은 '비비고 만두'를 비롯해 이색 비빔밥인 '비비콘', '잡채' 등 '비비고'

제품을 활용한 스낵 메뉴 7종을 판매한다. '김치 컵밥', '비빔 밥', '런치 박스' 등 투고(To-go) 메뉴도 함께 판매한다.

맨해튼 전역에 걸쳐 '비비고 QSR' 메뉴를 즐길 수 있도록 배달 대행 업체인 우버이츠 딜리버리와 계약했다. 대형 레스토랑 체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작은 레스토랑까지 배달 서비스가 점점 활발해진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집에서 간편하게 한식을 맛볼 수 있는 '비비고' 대표 제품을 판매하는 '비비고 마켓'도 운영한다.

공식 오픈 전인 19일 진행된 프리 론칭 행사도 열어 현지인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박은선 CJ제일제당 식품브랜드마케팅 담당은 "이번 '비비고 QSR'는 '비비고'가 메인 스트림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하고 현지 소비자에게는 한식의 맛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CJ제일제당은 전략 국가인 미국에 '비비고'를 앞세워 한국 식문화를 전파하는 첨병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희희 기자 yhh1209@

가스공사, 차입금의존도 68% '최고'

대한항공 65%·호텔신라 50%
롯데쇼핑 올해 대폭 늘어 46%
삼성전자 4.6% 로 소폭 낮아져

▶1면서 계속

실제로 한국은행이 이달 발표한 '2019년 11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기업 대출금 잔액은 875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9000억 원 증가했다. 앞서 9월과 10월에도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금의존도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전체 중 3곳(3%), 이와 반대로 한 자릿수를 기록한 기업은 25곳(26%)이었다.

차입금의존도가 가장 높은 곳은 한국가스공사(68.07%)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5년간 줄곧 60%대를 유지 중이다. 대한항공(64.78%)과 호텔신라(50.43%), SK네트웍스(49.69%), 롯데쇼핑(45.7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코스피 주요기업 차입금의존도 비중
(단위: %, 2019년은 3분기 기준)

종목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목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한국가스공사	66.18	64.83	65.29	65.80	68.07	CJ제일제당	41.79	42.26	42.30	40.70	44.79
대한항공	66.86	67.98	60.23	61.53	64.78	한미약품	21.33	20.80	28.67	37.32	43.76
호텔신라	39.43	36.82	39.21	28.60	50.43	S-OIL	33.30	33.74	32.11	40.13	43.58
SK네트웍스	30.15	31.84	29.23	33.85	49.69	현대차	39.27	41.07	40.40	40.57	41.96
롯데쇼핑	34.72	34.66	27.47	29.69	45.72	한온시스템	11.59	16.74	18.37	31.22	41.01

특히 호텔신라의 경우 2017년 39.21%에서 지난해 28.60%까지 낮아졌지만 올 들어 자본의 절반 이상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이다. 롯데쇼핑 역시 지난 2년간 20%대를 유지했지만 올 들어 대폭 늘었다.

반면 에스원(0.00%)을 비롯해 동서(0.06%)와 강원랜드(0.11%), BGF리테일(0.21%), 한올바이오파마(0.27%), 고려아연(0.50%), 한전KPS(0.60%) 등은 의존도 1% 미만으로,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삼성전자는 지난 5년간 5.32%

에서 4.57%로 낮아졌고 SK하이닉스는 12.87%에서 16.94%로 증가했다. 셀트리온은 28.96%에서 13.16%로, 포스코는 31.42%에서 25.81%로 각각 감소했다.

한편 기업들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올 3분기 23.8%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해엔 5.8%에 불과했다. 차입이 늘어난 만큼 이자비용도 자연스레 늘어난 탓인데, 특히 올해의 경우 기업 실적마저 지난해보다 부진하면서 증가폭을 키웠다.

고대영 기자 kodae0@

대호에이엘, 재무개선 계획 차질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 내년으로 연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이 또 다시 연기되면서 연내 재무 안정화를 꾀하던 대호에이엘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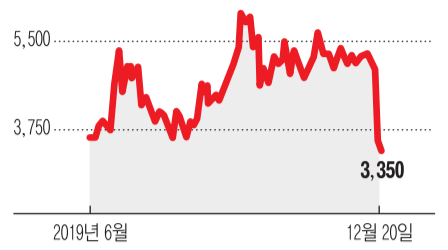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호에이엘이 최대주주 대호하이텍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250억 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이 12월 19일에서 내년 2월 26일로 2개월가량 늦춰졌다.

이와 함께 대호에이엘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발행을 추진한 CB 역시 내년 1월 22일이 돼야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호에이엘은 유증 정정과 함께 1·2회차 각각 150억 원, 152억 원 총 302억 원 규모의 CB 발행도 연기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채는 원데이즈인터네셔널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대호에이엘은 2002년 남산알미늄의 판매사업과 기술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돼 설립된 곳이다. 주 생산제품으로는 알미늄 코일(Coil), 판재(Sheet) 및 고품질 환절판(Circle Sheet) 등이다. 과거 주방기물 매출이 50%였다면 최근에는 전자제품과 자동차 매출이 60%를 넘고 있다. 알미늄 판매업계에서는 노벨리스코리아를 비롯해 조일알미늄, 대창AT 등의 경쟁사가 있다. 1위는 노벨리스코리아로 점유율이 80%를 웃돌며, 대호에이엘은 3위권이지만 점유율은 4~5%로 선두와의 격차가 크다.

최근 10년간의 매출 추이를 보면 2011년 별도기준 1700억 원대로 정점을 찍은 뒤에 1200억~1300억 원에 머물러 있다. 또 올해 들어선 작년보다 10%가량 더 줄

대호에이엘 주가
(단위: 원)



어 3분기까지 872억 원에 그쳤다. 게다가 수익 창출 능력도 떨어진다. 2010년 한때 영업이익률이 8%대를 기록했던 적도 있지만 최근 수년간은 1%대 전후로 낮아졌다.

시설 투자와 원재료 매입 대금 등을 외부 차입에 의존하다 보니 부채비율도 높은 편이다.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일반대출과 유상사 등 단기차입금만 459억 원에 달한다. 다만 지속적으로 부채를 낮추려는 노력에 부채비율은 2014년 331.3%에서 지난해 203.4%까지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해 3분기 말 기준 246.1%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호에이엘은 이번 유증과 CB 발행을 통해 마련하는 자금 552억 원 중 절반을 조금 넘는 300억 원을 채무 상환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대호에이엘은 19일 장중 유증과 CB 발행 연기 공시가 나오자 주가는 급격히 하락을 키우며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으며 20일에도 약세가 이어졌다. 유증과 CB 발행으로 늘어날 주식 물량 부담보다 재무개선 계획이 차질을 빚는 데 따른 우려의 시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조남호 기자 spdran@

올해 순익 69% 감소에도 현금흐름 '맑음'

상장사 재무 분석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올해 순이익의 감소 속에서도 현금흐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미반도체의 3분기 누적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40% 감소한 830억5908만 원, 영업이익은 86.56% 줄어든 68억 2783만 원이다. 당기순이익은 68.95% 감소한 137억5137만 원이다.

3분기 들어 순이익이 회복하는 등 실적 전반에서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서 적자 전환한 2분기를 비롯한 상반기 실적 부진의 여파가 컸다.

다만 순현금흐름은 올 들어 증가했다. 한미반도체의 순현금흐름은 272억 7173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난해의 경우 3분기까지 흐름이 마이너스 418억 원에 머물렀다.

우선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경우 재고자산을 정리한 덕을 봤다. 재고자산 정리를 통해 약 62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는데, 지난해 불어난 재고자산으로 140억 원의 유

한미반도체 연결 현금흐름(단위: 원)

	2018년 3분기	2019년 3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480억	304억
재고자산 증감	-140억	62억
투자활동현금흐름	-188억	98억
유형자산 처분	1.6억	294억
재무활동현금흐름	-711억	-130억
단기차입금 상환	-410억	-100억
교환사채 상환	-331억	0
순현금흐름	-418억	273억

※출처: 금감원 전자공시

3Q 누적 매출 830억 전년비 53% ↓

올 유동자산 처분 294억 현금 확보

중·대만 수주... 4분기 실적 기대

출이 있었던 것과 비교된다. 이로 인해 전체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300억 원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480억 원)보다 감소했지만, 올 들어 당기순이익이 3분의 1로 급감한 점을 감안하면 선방했다.

지난해 마이너스 188억 원을 기록한 투자활동 현금흐름도 유형자산의 처분 속에 98억 원으로 플러스 전환했다. 취득 자산 수준은 지난해와 유사했지만 처분 자산으로 294억 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했다. 지난해의 경우 1억 원 수준이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로 마이너스를 유지했지만 규모에서 차이가 났다. 지난해 -711억 원 규모이던 현금흐름이 올해 -130억 원으로 감소했다. 단기차입금 및 교환사채의 상황에 따른 현금 유출이 지난해만큼 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14%대의 낮은 부채비율과 380%대의 높은 유동비율을 기록했다. 올 들어선 현금 유입과 더불어 이율 지표가 각각 13.31%, 478.68%로 더 좋아졌다.

실적이 어렵지만 3분기 반등한 만큼 4분기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달 들어 대만과 중국으로부터 각각 33억 원, 41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주 계약도 체결한 상태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미반도체는 6월부터 9건의 수주계약을 공시했고 12월에 드디어 대만 난야 PCB와의 계약을 공시했다"며 "수주 가뭄 격정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반도체는 전통적으로 비세이 대만법인, 마이크로 대만법인 등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다"며 "대만에서 메모리향 반도체 장비를 비롯해 이번 공시와 같은 수주가 이어져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네이처셀 '조인트시스템' 美 임상 내년 진행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네이처셀이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시스템'의 미국 임상3상을 내년 시작한다.

최근 불거진 대표이사 관련 재판 이슈(징역 구형)가 임상 시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됐지만 조인트시스템의 미국 임상 시험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22일 "조인트시스템의 미국 임상 2b·3a상을 위한 식품의약품(FDA) 미팅 신청이 9월 이뤄졌고 10월 미팅 자료가 제출됐다"며 "11월 중으로 대면 회의에서 서면 미팅으로 협의하고 이달 12일 FDA에 의견 제출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목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임상 2b·3a의 승인을 받는 것"이라며 "내년 초 임상계획(IND)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네이처셀은 FDA에 조인트시스템의 임상 진행을 위해 △의약품 품질 관리 및 제조에 대한 자료(CMC) △비임상 시험의 결과 요약 △완료한 임상시험(5개)의 결과 요약 및 결과보고서(2개) △차상위 미국 임상시험 계획서(1개) 등을 제출했으며, 현재는 수차례 협의를 거쳐 임상시험계획서를 변경 중이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은 조인트시스템의 국내 임상 3상 결과와 미국 임상 2b·3a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의학첨단치료제(RMAT) 내지 미국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고종민 기자 kjm@

오전 10시에 제공하는 투자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Money 10에 게재됐습니다

〈기업 PR〉

글로벌 리츠 분산투자자 '안정적 배당수익'

메리츠증권증권 '메리츠글로벌리츠랩' 출시

메리츠증권증권은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REITs)를 국가 및 섹터별로 분산 투자하는 랩카운트인 '메리츠글로벌리츠랩'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리츠(REITst)'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여 임대료 및 매각이익 등의 수익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투자회사다. 최근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낮은 금리로 인해 리츠 투자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상장된 글로벌 리츠 자산은 국내시장보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여 투자 매력도가 높다.

글로벌 리츠는 2007년 이후 연평균 4% 수준의 배당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신규



부동산 매입과 임대료 상승 등의 가치 상승으로 추가적인 수익 추구가 가능하다. 또한, 일반 폐쇄형 실물 부동산은 투자 후 몇 년간 환가가 불가하지만, 상장 리츠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일반 주식처럼 언제든지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여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메리츠글로벌리츠랩'은 이러한 글로벌 리츠에 분산투자해 세계 주요 도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혜택을 받는 부동산 섹터인 임대주택, 스토리지, 데이터센터 등 장기 성장 트렌드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배당수익뿐 아니라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추가 수익도 추구한다.

최소가입 금액은 3000만 원 이상이며, 계약 기간은 1년이나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해지 시 별도수수료는 없다. 그리고 매분기 운용보고서를 발송해 현재 운용 상태와 향후 운용 전략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입 및 문의는 메리츠증권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가입 후 홈페이지, HTS, MTS에서도 계좌 조치가 가능하다.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9년 12월 22일 17:00, KST)

전일 대비 66,000원 (0.8%▲) | 6개월 대비 -2,928,967원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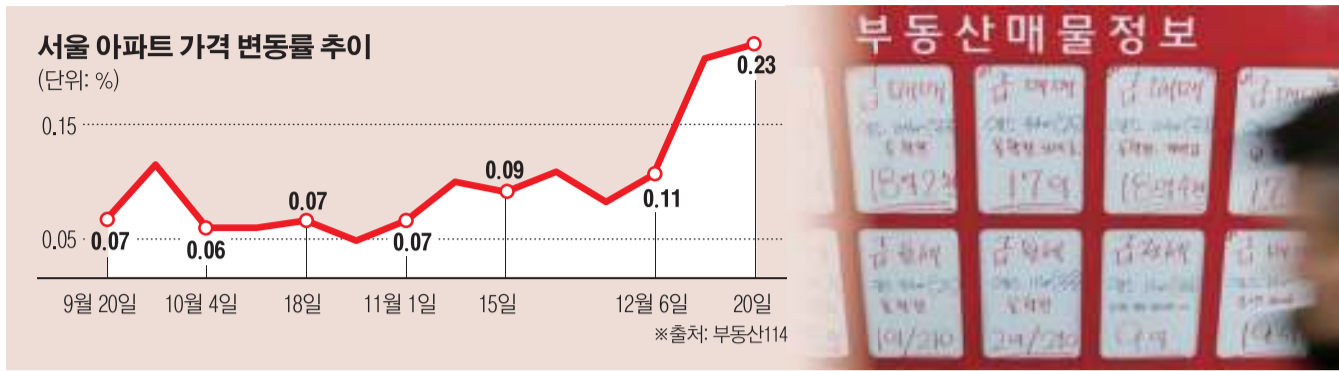
전일 대비 2,500원 (1.7%▲) | 6개월 대비 -179,343원 (54.4%▼)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220,200	3,400 (1.6%▲)	모네로	54,150	500 (0.9%▲)
리플	226	1 (0.4%▲)	비트코인골드	6,135	-65 (1.0%▼)
라이트코인	47,720	1,510 (3.3%▲)	이더리움 클래식	4,903	226 (4.8%▲)
대시	49,590	-510 (1.0%▼)	퀀텀	1,913	20 (1.1%▲)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12·16대책 後 서울 집값 신고가...정책효과는 언제?

아파트값 1주일 새 0.23%나 '경증' 매물 부족에 올들어 최대폭 상승 '마포레미안...' 호가 7000만원 씩 稅부담·은행 대출 문의 부쩍 늘어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 이 지났다. 이번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일단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시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후 첫 주말을 맞았지만, 본격적인 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장에선 아직 주택 보유자와 수요자가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눈치 싸움의 향방에 따라 12·16 대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前週)보다 0.23% 올랐다. 올 들어 가장 큰 오름폭이다. 구별 로도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1주일 전보다 아파트값이 올랐다. 부동산 114 측은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가운데선 12·16 대책 이후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곳도 적지 않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2차 아파트 전용면적 182㎡형은 18일 26억 원에 매매됐다. 12·16 대책 이전 최고가(25억 7000만 원)보다 몸값이 3000만 원 올랐

다. 같은 날 성동구 금호동2가 신금호파크 자이 전용 101㎡도 직전 최고가보다(13억 8000만 원)보다 4500만 원 오른 14억 2500만 원에 팔렸다.

다만 시장에선 여전히 매매 여부와 시점, 가격을 두고 고민이 깊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인근 R공인중개사 대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매도를 고민하는 전화가 온다"며 "다주택자 같은 경우 양도세 유예를 받을 수 있을 때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도 12·16 대책의 유효 기간은 인색하게 평가했다. 그는 "지금처럼 매물이 한두 건 나와선 내년 6월이면 시장에 내

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 하락폭이 작으면 차라리 집을 갖고 있으면서 반등을 노리는 집 주인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초강력 규제에 따른 수요 위축도 문제다. 도곡렉슬은 가장 작은 전용 60㎡형조차 16억 원이 넘는다. 12·16 대책에서 정부는 시세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허용치 않기로 했다. 주택 구입 자금 조달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도 불사하겠다는 정부 엄포도 수요자에게 부담이다. R공인중개사 대표는 "지금 출처가 웬만큼 투명하지 않고선 아파트를 사라고 권하기 쉽

지 않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상황도 비슷했다. 아현동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인근 G공인중개사 대표는 "아직까지 12·16 대책에 대한 반응이 뚜렷하지 않다"며 "매수 수요는 여전히 많지만 매물은 대책 전보다 늘지 않았다. 대응 방안을 물어보는 보유자는 많지만 그렇다고 물건을 내놓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간간이 나온 매물의 호가는 12·16 대책 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이달 초 15억 5000만 원에 거래된 마포레미안푸르지오 전용 85㎡형의 이날 호가는 16억 2000만 원으로 올랐다. 그는 "지금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기 싸움을 하는 중"이라며 "기 싸움에

서 진 집 주인들이 매물을 얼마나 내놓느냐에 따라 대책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론 기존 아파트 보유자는 당장 물건을 내놓기보단 전·월세 임대료를 늘려 세금 부담 증가에 대비할 것"이라고 점쳤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바빠진 건 세무사들이다. 주택 매매에 따른 득실을 따지려는 문의가 빗발치기 때문이다. 일선 세무법인엔 하루에도 몇 건씩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을 묻는 전화가 걸려온다.

은행 대출 창구도 붐비고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높이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16일 이후에도 정부가 추가 대출 규제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혼선은 더욱 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젠 은행이 서울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긴 힘들어졌다. 이전 그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일만 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센터 부장은 "아직까지 시장이 관망세에 들어선 것 같다"며 "다음 주부터는 매물이 조금씩 나오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1·2차 1389가구〉

위례 올 마지막 '5억 로또'...호반써밋 송파 26일 청약

분양가 협의 문제로 연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위례신도시 '호반써밋 송파' 아파트가 분양시장에 나왔다. '잡으면 로또'라는 입소문에 갑작스럽게 결정된 분양에도 청약 대기수요들의 반응이 뜨겁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북위례에 조성되는 호반써밋 송파 1·2차는 이번주 26일 동시에 청약에 들어간다. 20일 문을 연 견본주택에는 개관한 후 3일 동안 1만50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갑작스럽게 분양이 결정됐는데도 내부에 들어가기까지 수백여 명의 대기 줄이 이어진 데다 상담 소요시간도 상당했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위례신도시에서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하는 이번 단지는 1389가구 대단지로 조

성된다. 1차와 2차를 각각 호반산업과 호반건설이 공급한다. 1차는 A1-2블록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0개동으로 총 689가구 규모다. 2차는 A1-4블록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11개동으로 총 700가구로 조성된다.

이번 분양의 핵심은 단연 분양가다. 위례신도시는 공공택지여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1·2차 분양가는 각각 3.3㎡당 2204만5000원, 2268만 원으로 2차가 다소 높다. 이는 4월 분양한 '송파 위례 리

슈빌 퍼스트클래스' (3.3㎡당 평균 2179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1차를 기준으로 할 때 분양가는 최저 9억190만 원에서 최고 9억1170만 원이다.

호반써밋 송파 인근에 위치하는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는 지난달 전용 101㎡가 14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위례 송파 푸르지오' 역시 같은달 108㎡가 14억 원에 팔렸다.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시세 차이는 약 4억~5억 원에 달한다.

분양가는 시세 대비 낮지만 대부분의 주택형이 전용 108㎡ 이상이어서 분양가는 모두 9억 원이 넘는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서면 중도금 집담대출이 불가능한 만큼 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전매 역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8년 동안

제한된다.

특히 자금력이 있다고 해도 웬만한 가점으로는 당첨 안정권에 들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위례신도시는 청약에 당첨되면 '로또'를 거머쥐게 된다는 기대감이 크다. 그만큼 이곳을 바라보는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다는 의미다. 올해 상반기에 위례신도



20일 문을 연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호반써밋 송파' 견본주택에는 개관 후 3일 동안 1만50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에서 나왔던 '위례 포레지아'와 '힐스테이트 북위례' 모두 각각 130대 1, 77.3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상반기 최고 당첨 커트라인(82점)도 위례 분양 단지에서 나왔다. 호반써밋 송파 1·2차는 당첨자 발표가 내년 1월 3일로 갈아 동시 청약은 할 수 없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금주의 분양캘린더

12월 넷째 주엔 7600여 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적으로 총 8개 단지, 7611가구(총가구 수 기준)가 분양된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e편한세상 흥제가든플라츠, 경기 평택시 신장동 송탄

역서희스타힐스, 대구 달서구 두류동 두류파크KCC스위첸 등이 청약을 받는다.

17개 단지에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다. 대구 중구 대봉동 대봉서한포레스트, 인천 부평구 신곡동 부평두산위브더파크, 경기 수원시 교통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등에서 청약 당락이 걸린다.

계약을 하는 단지는 15곳이다. 경기 고양

시 덕은동 덕은DMC에일린의뜰,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2차노블랜드에듀포레일, 충북 청주시 가정동 청주가경아이파크4단지 등이 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다섯 개 단지에서 문을 연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 더샵 온천헤리티지, 대구 달서구 본동 달서코아루더리브 등이 27일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현대건설을 도시정비 2.8조 수주 '1위'

부산 감천2지구 재개발 파내

현대건설이 부산 감천2구역 재개발사업(조감도) 수주에 성공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를 달성했다.

현대건설은 21일 부산 감천2구역 재개발 조감도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감천2구역 재개발은 감천동 202번지 일원을 지하 4층, 지상 36층 21개 동 2279가구로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4923억 원에 이른다.

현대건설은 올해 △서울 대치동 구마울 3재개발 △등촌1구역 재건축 △과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 △청주 사직3구역 재개발 등 전국 10개 현장에서 2조3832억 원을 수주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대구 수성

지구2차 우방타운 재건축사업' 수주에 성공하면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3조 원을 돌파한다.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은평구 갈현1구역 시공사 지위 박탈, 용산구 한남3구역 특별점점 등 악재가 겹쳤음에도 현대건설은 탁월한 전문성과 뛰어난 기술력, 풍부한 자금력 등을 바탕으로 각 사업지에 맞춘 수주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주택사업 수주 역량 강화를 위해 1월, 주택사업본부(既주택사업부)를 신설하고 도정법 개정 등 대외 사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준법민원대응팀, 기술력 경쟁력강화팀 등 조직을 재편했다.

문선영 기자 moon@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12/26 (목)	접수	대구	중구	대봉동	대봉서한포레스트
					부산
12/23 (월)	계약	경기	안산시	원곡동	e편한세상초지역센트럴포레 (~12/26)
					안양시
12/24 (화)	발표	인천	부평구	산곡동	부평두산위브더파크
					대구
12/27 (금)	발표	경기	수원시	교동면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부산
12/26 (목)	접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e편한세상흥제가든플라츠 1순위(당해지역)
					경기

(주1) * = 오피스텔, * =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靑 의혹 의연하게 수사”... ‘원칙’ 강조한 윤석열

한국전쟁 역사 기리는 서울수복기념관 짓는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에 “흔들리지 말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후배 검사들에게 ‘흔들림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인해 거세지는 외풍에 ‘원칙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20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부장검사들과 오찬 자리에서 “의연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탐색수사 등 과거 검찰 수사 방식이 지금과 크게 달라져 (밖에서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지금도 당연하게 하는 수사 활동이면 훗날 어떻게 평가될지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2차장 산하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압수수색한 날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넘겨받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여기에는 “직접 챙기고 책임도 지겠다”는 윤 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본격적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을 파헤치면서 청

와대가 지난 지방선거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공공수사2부는 18일 국무총리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첩보 생산 경위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권을 정조준한 만큼 윤 총장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시장 사건 재수사를 위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하려다 20일 보류하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1일 ‘하명수사’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이었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의 극단적인 선택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평소 후배 검사들에게 자주 던지는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라며 수사팀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원래 외풍을 막아주는 자리”라는 말도 자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노들섬 스케이트장 50년 만에 부활

22일 서울 노들섬 노들마당 야외 스케이트장에서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50년 만에 다시 문을 연 노들섬 야외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 16일까지 운영된다.

현충원 인근에 2023년 개관

서울시는 국립서울현충원 인근에 한국전쟁 당시 ‘서울수복’을 기념하는 ‘서울수복기념관(가칭)’ 건립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념관은 동작구 동작주치근린공원 내 부지(3000㎡)에 2층 규모로 조성된다. 2023년 개관 목표로 전액 시비를 투입한다.

서울수복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인천상륙작전 직후 1950년 9월 18~28일 해병대와 국군, 유엔군이 수도 서울을 회복한 작전이다. 한국전쟁의 국면을 전환시킨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기념관은 서울수복을 기념하는 독립적인 전시공간이자 추모공간, 안보교육의 장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내부에는 전쟁사



서울수복기념관 조감도. 사진제공 서울시

공간(유물·유품), 추모 공간(참전용사 명비 등), 체험공간(모의 사격훈련 등), 안보교육실(정기강좌 등), 수장고, 지원 시설(사무실·매점 등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며 외부에는 기념탑과 같은 상징 조형물과 광장이 포함된다.

특히 인접한 국립서울현충원, 한강변 보행네트워크(여의나루역~동작역)와 연계하고, 지역에 부족한 편의·휴게시설을 확충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수복기념관이 서울수복을 기념하며 역사의 아픔을 공유하는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시민과 지역 주민에게는 열린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서울시민 ‘내 집 마련’ 욕구 더 커졌다

주택구입태도지수 0.9포인트 ↑

서울 시민의 ‘내 집 마련’ 욕구가 커졌다.

서울연구원이 22일 발표한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0년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4/4분기 서울시민의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71.9로 조사됐다.

서울 시민의 주택구매 의사를 나타내는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1/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상승했다. 2019년 4/4분기 서울시민의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84.6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9년 4/4분기 93.3으로 전 분기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소비자

태도지수는 100을 넘으면 경제전망이나 소비지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은 경우는 반대다. ‘순자산지수’와 ‘고용상황전망지수’도 상승했다. ‘소비자태도지수’는 고용지수의 완만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0.5포

인트 오른 84.9를 기록했다. ‘미래생활형편지수’도 전 분기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89.1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가계소득 증가, 보유자산 가치 상승, 가계부채 감소 등의 이유로 1년 후 가구 생활형편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내년 서울 시민의 경제 이슈 1위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28.0%)’로 꼽혔다. ‘부동산 경기(9.9%)’, ‘소비심리 및 내수 경기(7.7%)’, ‘주 52시간 근무제(6.8%)’, ‘소득양극화(6.3%)’, ‘생활물가 상승(6.2%)’ 등이 뒤를 이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재미

공감

위로

BRAVO My Life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잼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잼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잼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지니야 우리
민준이 칭찬해줘!”



“우리 **민준**이 치카치카 정말 잘하네!”

핑크퐁의 목소리로 우리아이의 바른 습관을 길러보세요



GiGA Genie × 핑크퐁

핑크퐁 칭찬하기

스마트한 칭찬 육아법

핑크퐁의 목소리가 직접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며
칭찬해주거나 타일러 줄 수 있는 기가지니 핑크퐁 칭찬하기

Copyright © Smart Study Co., Ltd. All Rights Reserved.



'안전관리 전담조직' 협력사에 노하우 전수



삼성전자는 2014년 협력사 환경안전 관리를 지원하는 별도 조직을 구성해 국내외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노하우 전수, 교육 등 환경안전 개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협력사 환경안전 관리는 △작업환경 개선 △교육 △공유와 확산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삼성전자가 협력사 대표와 환경안전 책임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협력사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017년 고위험 화학물질 사용 협력사에 대해 저위험 물질로 대체해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업종별 우수 협력사를 EHS(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베스트 파트너(Best Partner)로 육성하고 있다. 육성 대상 우수 협력사를 매년 확대해 국내외 전 협력사의 환경안전 리스크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 1회 이상 협력사 대표, 환경안전 책임임원, 담당 실무자 등 계층별로 환경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환경안전에 대한 이해, 주요 개정 법안, 분야별 전문화된 내용 등으로 구성되며,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협력사의 환경안전 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각 사업장의 환경안전 현안을 공유하고, 우수 협력사 사례를 타 협력사에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매년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삼성전자 환경안전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보다 안전한 협력사 근로환경을 구축하고자 1~3차 협력사들과 함께 협력사 환경안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2·3차 협력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외부 컨설턴트 파견을 통해 현장 점검과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매년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삼성전자 환경안전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보다 안전한 협력사 근로환경을 구축하고자 1~3차 협력사들과 함께 협력사 환경안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2·3차 협력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외부 컨설턴트 파견을 통해 현장 점검과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1·2차 협력사 대표와 환경안전 책임자들이 참석한 환경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협력사 환경

'굿잡 5060' 신중년 123명 재취업 성공



현대자동차그룹은 50~60대의 재취업을 돕는 국내 대표 신중년 일자리 사업 '굿잡 5060'을 추진 중이다. 참가자 54%가 재취업에 성공하는 등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자동차 '굿잡 5060 성과공유회'에서 참석자들이 소망이 담긴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은 3일 서울 강남구 소재 스킵라티움 강남에서 '굿잡 5060 성과공유회'를 열고 1년 6개월 동안의 신중년 재취업 지원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신중년'이란 한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자 생산가능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50~60대를 가리킨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굿잡 5060'은 50~60대 신중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현대차그룹)과 정부(고용노동부), 공공기관(서울시 50플러스재단), 사회적기업(상상우리) 등 민·관·사회적기업이 협력한 일자리 사업이다.

사업명인 굿잡 5060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신중년 세대가 역량을 발휘해 '좋은 일자리(Good job)'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나아가 새로운 경력을 이어가는 신중년이 '멋지다(Good job)'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굿잡 5060은 지난해 7월 출범 이래 10월까지 신중년 123명의 재취업을 지원하며 취업률 54%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총 108명이 새 조직에 안착해 고용유

지율은 88%에 달했다.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저임금의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닌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상용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지원자 930명 중 심사를 거쳐 참가자 229명을 선발했고, 참가자들은 평균 나이 54.3세다. 평균 24.4년의 경력을 보유한 은퇴 인력들이기도 하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굿잡 5060은 신중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굿잡 5060이 신중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자리 문제 해결과 사회적기업과의 동반성장에도 더욱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T멤버십'으로 골목상권·동네빵집 홍보... 매출 증대 기여



SK그룹은 사회적 기업, 골목상권, 협력사 등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을 추구하는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9월 전국에 위치한 소상공인들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T멤버십 열린거리', 전국 동네빵집을 홍보해주는 'T멤버십 열린베이커리' 제휴 서비스를 시작했다. 비용 문제로 매장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T멤버십'을

통해 매출 증대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고객들은 SKT의 5GX클러스터인 익선동과 성수동에서 T멤버십 쿠폰을 이용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멤버십을 이용하면 '열린거리' 메뉴에서 익선동, 성수동 소재 45개 매장의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SK네트웍스는 자사 렌터카 사업 브랜드 'SK렌터카'가 보유한 중고 경용용차(다마스)를 사회적 기업·자동차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관련 업체에 1년간 무상 대여해 주는 상생협력 모델 '모빌리티뱅크' 2기 발대식을 9월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었다.

SK건설은 9월 충북 충주에 소재한 비즈파트너

(Biz Partner) ㈜대신시스템 공장을 방문해 동반성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임영문 SK건설 경영지원담당 사장을 비롯한 SK건설 임직원, 민경천 ㈜대신시스템 대표와 임직원, 행복날개협의회 임원사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SK건설 측은 비즈파트너 경영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동반성장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가졌다.

SK건설은 2011년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우수 비즈파트너 협의회인 행복날개협의회를 발족했다. 금융 및 기술개발 지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교육 훈련 등 업계 최고 수준의 동반성장 방안을 꾸준히



SK네트웍스 관계자들이 9월 '모빌리티뱅크 2기 발대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SK그룹

마련해 적극 실천하고 있다. 임영문 SK건설 경영지원담당 사장은 "앞으로도 비즈파트너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9114억 금융지원으로 협력사 경쟁력 제고



LG는 협력사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총 9114억 원 규모의 협력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영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을 강조한 결과 올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7개 계열사가 최고 등급을 받았다. 2012년 동반성장지수 발표 이후 국내 대기업 중 7개 계열사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계열사 임직원들이 스타트업 업체인 컨시더서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제공 LG

위해 매년 40억 원 규모의 그린상생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중소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플라스틱 제품 설계 등 다양한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4월 중소 벤처기업들이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U 5G 이노베이션 랩'을 마국 사육에 개소했다. 개소 후 3개월 동안 3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이 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최근에는 구글 에코시스템과 5G를 활용에 다양한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구글랩도 추가했다.

이외에도 LG 기술개발의 중심인 LG 사이언스파크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위해 공동 연구 공간인 '조인트 랩'과 중소 스타트업을 위한 개방형 연구공간도 운영한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LG전자는 올해 31개국에 있는 1차 협력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자가진단을 했다. 자가진단은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인 RBA가 공유하는 양식을 바탕으로 노동자 인권, 산업 안전 등 약 90개의 세부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또 웹 OS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스타트업 4곳을 선발하고 개발 노하우를 전달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려는 방안으로 △최고의 원가경쟁력 확보 △SCM(공급망 관리) 구축 △품질·납기 준수 △안전·정도 경영 등 4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LG화학은 에너지 효율 개선이 어려운 협력사들을

상생펀드 조성... '함께 멀리' 동반성장 실천



'함께 멀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평소 강조하는 상생경영·동반성장 철학이다. 이 신조에 맞게 한화그룹은 상생경영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계열사의 준법경영과 상생경영을 지원, 감독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위원회가 출범했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경영, 기업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도 유형화했다.

한화그룹은 40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로 협력사의 저금리 대출과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제조·화학 계열사들은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품 및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고 있다.

㈜한화는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상생펀드 운영, 협력사 현금결제 비율 확대 등을 통해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대표이사 주관으로 협력사와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하도급법 준수와 공정거래 이행을 위한 협약식 및 협력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김흥곤(왼쪽) 제일정밀(株) 대표와 유강식(우측) ㈜한화 구매 담당 부장이 제품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그룹

청렴한 거래문화 유지를 위한 '준법 서약식'을 비롯해 당사 경영진과 협력사 대표들의 준법 실천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준법열매달기' 세레모니 행사도 한다.

한화건설은 2002년부터 매년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운영자금 지원, 동반성장 펀드 조성, 협력사 소통 강화 등 주요 동반성장 활동들에 대해 발표하고 경영 닥터제 특강 등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 공유한다.

한화케미칼은 정기적으로 주요 협력사와 에너지 상생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에너지 컨설팅 전문기관과 함께 협력사의 생산설비와 에너지 현황을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年 2회 '협력사 상생 간담회' 기술·금융 지원

HYOSUNG

효성은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키워야 회사도 함께 성장한다는 철학을 토대로 협력사를 육성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조현준 회장이 평소 "협력업체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며 상생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효성은 △기술 컨설팅과 설비개선 지원 △상호 협력적인 제품개발 △전시회 동반 참가를 통한 글로벌 판로 개척 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상생활동을 펼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초고압 전력기기 부문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협력사에 조작성 등 핵심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업체의 품질 개선을 위해 생산관리 시스템, 원격검사 시스템 등 설비도 지원한다. 최근에는 IC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매년 두 차례 상생 간담회도 한다. 올해 5월에는 초고압 변압기, 차단기 등에 부품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19개 협력사를 초청해 상생 간담회를 열고 서울 마포구 상암공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했다.



효성그룹과 협력사 임직원들이 5월 열린 '상생 나무심기'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효성

효성은 협력업체의 재무상황 개선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설비도입,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위해 금융권과 '네트워크론' 협약도 체결했다. 네트워크론은 은행, 구매기업이 협약을 맺고 협력 기업의 납품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선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효스티앤씨는 원단 생산 협력업체들과 함께 대구 국제섬유박람회, 상하이 인터텍스타일, 프랑스 파리 모드 시티를 비롯한 글로벌 섬유전시회에 동반 참가하고 있다. 부스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최신 정보 공유는 물론 해외 바이어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3년간 21개 해외 전시회에 198개 업체가 전시회에 동반 참가했다.

강소기업 육성 '리딩 서플라이어' 운영



두산의 상생경영은 협력사와 '선순환적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한다.

선순환적 파트너십이란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도와 성장한 협력사들이 두산의 사업을 지원하면서 상호 성장의 궤를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두산은 경쟁력 공유, 기술력 및 재무 지원,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매, 생산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지향한다.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 육성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중점 협력사를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리딩 서플라이어(Leading Supplier)'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6월 리딩 서플라이어 대상 업체로 선정된 5개 협력사와 육성 프로그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력사의 제품 품질과 납기 준수율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협력사 스스로 개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육성기, 사후관리, 자생력 강화, 내재화 등 총 4단계로 활동을 세분화했다.

특히 올해는 생산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솔루션을 결합해 생산성과 품질,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스마



두산인프라코어 협력사 육성 프로그램 '2019 리딩 서플라이어'에 참여 중인 태화물산 관계자들. 사진제공 두산

트 공장 구축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은 2013년 퇴임 임원들로 구성된 '경영자문단'을 발족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경영자문단은 퇴임 2년 미만 연구·개발(R&D), 설계, 품질, 생산, 사업관리 등 5개 분야 전문가들로, 30년 넘게 축적된 노하우를 매년 약 20개 협력사에 재능 기부하며 경쟁력을 향상하고 있다. 이는 서로 윈-윈하는 동반성장 모델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협력사와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정기·수시 방문 등 원활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베트남 동반진출 및 해외법인을 통한 계약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현장 중심의 동반성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복지·교육·환경' 3대 핵심영역 설정해 이웃사랑 실천



GS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계열사별로 임직원 자원봉사와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GS건설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정착을 위해 △사회복지 △교육·문화 △환경·안전의 3대 핵심 사회공헌 영역을 설정하고 활동하고 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활동은 '꿈과 희망의 공부방'으로 이름 붙여진 저소득층 가정 공부방 지원사업이다. 2011년 5월 1호를 시작으로 2013년 6

월 100호를 오픈했으며, 2016년 11월 200호점을 완공했다. 지난해 말 260호점까지 오픈하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GS건설이 남촌재단과 연계해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도 매년 진행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에너지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며 2013년 '마음톡톡' 사업을 시작했다. '마음톡톡'은 청소년기를 지나는 아이들의 건강한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을 위해 자아와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집단예술치유 프로그램이다.

GS홈쇼핑은 '아동 복지'를 추진사업으로 설정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GS홈쇼핑의 아동복지 사회공헌 활동 테마는 '무지개 상자'로 가정이나 경제적 문제로 교육, 문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특기 적성 교육을 지원하고 바르게 자라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자 하고 있다.

GS리테일은 이웃과 더불어,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사회 소외계층 지원, 지역친화 활동, 재해재난 지원 등을 펼쳐 나가고 있다.



GS건설의 중점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인 저소득층 가정 공부방 지원사업 '꿈과 희망의 공부방'에서 임직원들이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GS

특히 'GS나눔미'라는 봉사단을 조직해 각 지역에 퍼져있는 점포를 통해 매달 고아원이나 양로원 청소, 노숙자 배식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부·장 국산화" 432억 혁신성장펀드 조성



LG화학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 협력회사가 기술 및 경영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사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직접 협력회사를 방문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의 상생을 챙기고 있다. 신 부회장은 지난달 15일 배터리 분야의 대표적인 부품·장비업체인 동신모텍과 신성에프에이를 방문해 "'소·부·장'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올해 4월 관련 협력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432억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했다.

혁신성장펀드는 소·부·장 기업들이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성된 펀드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들은 은행을 통해 필요한 금액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협력회사에 LG상생펀드 및 LG패밀리론 등을 통해 매년 700억 원 이상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상생펀드 조성액을 440억 원에서 629억 원으로 증액했고,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1%포인트(p)에서 2.35%p로 확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지난달 15일 배터리 부품장비 협력사 신성에프에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제공 LG화학

대했다.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조건도 꾸준히 개선해 현재 하도급 대금 결제를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월 마감 횟수를 3회로 늘려 마감 후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LG화학은 협력회사가 채용한 인력에 일정 기간 채용장려금을 무상으로 지급해 협력회사 인재 확보 및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청년 실업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미래 주역들 정서 치유 '마음톡톡' 사업 전개



GS칼텍스는 '에너지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사회공헌 슬로건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GS칼텍스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은 아동 심리·정서 치유 '마음톡톡' 사업이다.

2013년 시작한 '마음톡톡' 사업은 청소년기를 지나는 아이들의 건강한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을 위해 자아와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집단예술치유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7년간 전국에서 총 1만8000여 명의 아동·청소년들의 마음 치유를 지원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의 재원은 40%가 넘는 GS칼텍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후원금과 회사의 매칭그랜트를 통해 조성되고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또한, GS칼텍스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GS칼텍스재단을 통해 '여수문화예술공원 GS칼텍스 예술마루'를 운영하고 있다.

GS칼텍스 예술마루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도시에 걸맞은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GS칼텍스재단이 여수시와 함께 여수시 망마산과 장도 일원의 약 70만㎡(21만여 평) 부지 위에 약 1100억 원을 투자한 복합문화 예술 공간이다.

GS칼텍스는 올해 5월에는 예술마루 2단계 사업인



GS칼텍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마음톡톡'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GS칼텍스

장도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9만4843㎡(2만8690평) 규모의 'GS칼텍스 예술마루 예술의심 장도'도 개관했다.

아울러 GS칼텍스는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존립을 위해 여수시의 출산 장려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수지역 아동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키워주기 위해 2010년부터 'GS칼텍스 희망에너지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2010년부터 최고경영자(CEO)를 의장으로 하는 'CSR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임활동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중소 협력사 후원 '500억 수출계약' 성사



올해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9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황창규 KT 회장은 연설 도중 '넥밴드'를 꺼내들었다. 이 넥밴드는 통화뿐 아니라 360도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5G 네트워크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다. 황 회장은 이 넥밴드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이 MWC 2019에서 첫선을 보인 넥밴드는 KT의 중소벤처 지원 프로그램인 '비즈컬래버레이션'과 인연을 맺고 탄생한 제품이다. 중소 개발사인 링크플로우가 개발한 이 제품은 올해 6월 KT에 의해 세계 최초 5G 웨어러블 360 카메라인 '핏 360(FIT 360)'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됐다.

핏 360은 목에 거는 넥밴드형 카메라로, 다른 360 카메라와 달리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촬영이 가능하다. 120도 간격으로 3대의 카메라를 장착했으며, 촬영 버튼을 누르면 3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4K 초고화질(UHD)로 주변을 촬영한다. 촬영된 영상은 스티칭(Stitching) 작업을 거쳐 KT의 '리얼 360' 앱으로 실시간 전송된다.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촬영이 가능해 동영상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유튜브, 브이로그는 물론 SNS를 즐기는 5G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KT가 중소벤처기업의 상생경영을 위해 추진 중인 '비즈컬래버레이션' 활동. 사진제공 KT

KT는 최고 수준의 5G 네트워크와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비즈컬래버레이션'과 '공동R&D과제'가 있다. 링크플로우도 비즈컬래버레이션의 지원을 받아 핏 360을 내놓을 수 있었다. 또한 KT는 중소 협력사들의 해외 진출을 다각적으로 후원해 올해 500억 원 이상의 수출계약을 파내는 데 밑거름 역할을 했으며, 매년 파트너스 데이 개최해 중소 협력사들과 상생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5G는 B2C 중심이었던 이전 세대와 달리 B2B를 통해 파괴적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KT는 글로벌기업, 대기업은 물론 국내 중소벤처기업들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성장 전방위 지원



함께 가는 친구, 롯데

롯데는 롯데엑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감으로써 창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하드웨어, 핀테크, 펫(PET) 비즈니스 등 사업성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전략적·재무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 창출도 꾀하고 있다.

2016년 2월 롯데엑셀러레이터는 법인 설립 자본금 150억 원 중 신동빈 롯데 회장이 50억 원을 사재 출연했다. 이사회 의장은 롯데지주 황각규 부회장이 맡고 있다.

롯데엑셀러레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초기벤처기업을 선발해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엘캠프(L-Camp)'다. 엘캠프에 선발된 기업은 약 6개월간 창업지원금 2000만~5000만 원을 비롯해 사무공간, 전문가 자문 등을 제공한다.

엘캠프는 국내 최대의 고객 접점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들과 협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타트업들에 각광받고 있다. 유통·서비스·관광·케미칼·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고, 매출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6월에 진행된 '롯데엑셀러레이터 데모데이'에서 참가기업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그룹

사업력을 인정받을 경우 후속 투자를 받기도 쉽다.

현재 엘캠프 5기 11개사와 '엘캠프 부산' 10개사가 지원을 받고 있다. 엘캠프 1~5기, 엘캠프 부산 1기 등 82개사를 비롯해 롯데엑셀러레이터가 지원한 스타트업은 100개가 넘는다. 롯데엑셀러레이터는 IR 워크숍 등의 교육·코칭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선배 창업자 및 투자자 등으로 멘토진을 구성해 엘캠프 모델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롯데는 보다 적극적인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 지난해 6월 총 272억 원 규모의 '롯데스타트업펀드 1호'를 조성했으며 현재까지 15개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최근에는 인수어테크 기업 '보맵'에 20억 원, 공유주방 스타트업 '심플프로젝트컴퍼니'에 15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올리브영, K뷰티와 '즐거운 동행' ... 글로벌 中企 판로 확대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국내 중소 화장품 브랜드를 인수하며 K뷰티의 위상이 한껏 치솟고 있다. 올리브영은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토종 중소기업 브랜드의 성장을 이끄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합리적인 가격대와 우수한 품질을 고루 갖춘 신상품을 발굴해 선보이는 동시에 국내 중소기업에는 판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K뷰티 시장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리브영이 취급하는 브랜드 가운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은 80%에 달한다. 이는 '레스 머니 모어 뷰티(Less money, More beauty)'라는 가성비 가치를 강조하며 줄곧 중기 제품 발굴에 주목한 결과다.

지난달에는 대표적인 상생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즐거운 동행' 상품전을 개최하며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를 소개했다.

올리브영은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주요 매장 과 온라인몰에서 '즐거운 동행'을 통해 발굴한 스

트 스킨케어 브랜드 '보타니티' △올 하반기 새롭게 입점한 스킨 케어 브랜드 '베베루나' △입욕제 브랜드 '폭남' 등의 특가 기획전을 실시했다.

올리브영은 '즐거운 동행'으로 발굴한 신진 K뷰티 상품을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앞서 7월 진행한 온라인 상품전에서도 참여 상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1% 급증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올리브영이 '즐거운 동행'을 통해 발굴한 브랜드는 10월 말 기준 총 61개사, 취급 상품 수는 총 500여 개에 달한다.



올리브영은 4월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유통센터와 '즐거운 동행' 입점 품평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CJ올리브영

올리브영 관계자는 "협력사들의 성장이 곧 올리브영의 성장"이라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활약하며 K뷰티 산업의 선진화를 이끌어가는 중소기업 육성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에 '노브랜드' ... 상생 역발상 통했다



노브랜드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경쟁 관계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업형 유통이 오히려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전통시장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열어 상품 구색을 강화해 주는 한편 고객십터와 청년마차, 키즈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집객 콘텐츠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돕는다.

이마트는 12일 인천 남동구 장승백이 시장에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개인마트 자리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선보이며 골목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장승백이 시장은 1994년 '장대시장'으로 시작해 2013년 '장승백이'로 이름을 바꾼 인천 남동구의 대표 전통 시장으로 도심과 주택단지 안에 위치한 골목형 시장이다.

1994년 오픈 초기만 해도 장승백이 시장은 2~4층짜리 건물 7개로 이루어진 현대식 시설에 근저 공용주차장까지 갖추고 있어 약 180여 개의 매장이 성업하는 골목시장이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식자재마트 등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면서 장승백이 시장은 공실이 20여 개가 생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장 상인회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7월 이마트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입점 희망 의사를 전했고 5개월 만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장승백이점의



인천 남동구 장승백이 시장에 위치한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전경. 사진제공 이마트

오픈이 성사됐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12호점은 장승백이 시장 내 지하 1층 510㎡(약 154평) 규모로 들어서며 시장에서 윈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신선·가공·생활용품 구색을 확대해 침체된 시장의 활성화를 돕고 있다. 이마트는 장승백이 시장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외에 종전에 운영하던 '와글와글 도서관' 리뉴얼, 시장 내 노후화된 매장 개선, 상인회 사무실 조성 등도 지원했다.

2013년 시장 내에 개소한 61㎡(약 18평) 규모의 와글와글 도서관은 지역 주민에게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장으로의 고객 유입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마트는 도서관의 모든 집기와 시설물을 새것으로 교체한 것은 물론 공기청정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2000여 권의 도서와 교구도 지원했다.

'햇살나눔' 통해 수혜자 중심 사회공헌 활동



에스오일(S-OIL)은 핵심 가치인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 '햇살나눔' 캠페인을 통해 효과성, 적시성, 수혜자 중심의 3대 원칙에 따라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햇살나눔 프로그램은 크게 지역사회·환경·영웅지킴이 캠페인으로 이뤄졌다. 지역사회지킴이 캠페인은 울산, 마포, 마곡 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문화예술 & 나눔캠페인, 울산복지재단 설립·운영, 복지단체 지원 등 활동을 추진한다.

에스오일은 영웅지킴이 캠페인을 통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주변의 진정한 영웅들을 격려하여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힘든 근무 여건 속에서도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을 지켜주는 소방관, 해양범죄 단속과 각종 해난 구조에 앞장서는 해양경찰, 희생정신을 발휘해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보호한 의로운 시민이 주인공이다.

에스오일은 순직 소방관, 해양경찰 가족에게 위로금과 학자금 지원하고 있으며, 근무 중 부상당한



후세인 알 카타니(왼쪽) S-OIL CEO가 11일 열린 '2019 영웅 소방관 시상식'에서 올해의 최고 영웅 소방관인 전준영 소방장(오른쪽)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사진제공 에스오일

소방관, 해양경찰의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방관, 해양경찰을 위한 휴 캠프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연말 소방영웅, 해양영웅, 시민영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매년 '소방영웅 시상식'도 개최한다. '2019 소방영웅 시상식'은 이달 11일 개최됐으며, 에스오일은 '최고 영웅 소방관'을 포함한 '올해의 영웅 소방관' 8명에게 상패와 상금 9000만 원을 수여했다.

에스오일은 소중한 자연과 생물종 다양성을 보전해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환경지킴이 캠페인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수달, 두루미, 어름치, 장수하늘소 등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 전문단체의 연구·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을 운영 중이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 요즘 해외주식 지류가 인기라는데,
 해외주식 투자는
 어디서 해야 하나?”



글로벌 투자 · 자산관리의 名家

하나금융투자에서 시작하자!



온라인 5개국, 오프라인 23개국 * 기준일 2019.7.5
28개국 거래 가능 서비스



해외주식 전문가의
24시간 상담 서비스 02)3771-3771

※투자 전 설명 청취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상품 아님 ※원금손실 가능 ※해외주식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
 ※해외주식은 현지 사정에 따라 결제일이 지연될 수 있음 ※해외주식 매매수수료는 온라인기준 미국 0.25%(최소수수료 USD 5), 중국 0.3%(최소수수료 없음), 오프라인기준 미국 0.5%(최소수수료 USD 20), 중국 0.5%(최소수수료 CNH 50), 국가별, 주문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9-02690호(2019.07.05~2020.07.04) CC브랜드190705-64 m.hanaw.com | 1588-3111

하나금융투자

“야놀자송, 단순해 보이지만 데이터 분석 녹아있죠”

‘초특가 캠페인’ 만든 김혜정 야놀자 브랜드마케팅 실장

타깃 고객 누구인지, 구매결정 요인 뭘지 치밀하게 준비
페이크케이션 참고한 유머코드 쏠연령대에 강하게 어필



큰 요소가 ‘가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초특가 야놀자’ 카피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초특가 캠페인 광고의 경우 작년 봄부터 유행한 ‘페이크케이션’을 참고했다. 페이

“초특가 야놀자”
굳이 부르지 않아도 머릿속에 기억나는 멜로디가 있다. 지난해 ‘수능 금지곡’으로 불릴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야놀자 초특가 캠페인 광고 CM송이다. 간단한 한 구절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노력이 녹아 있다. 타깃 고객층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부터 시작해 브랜드 인덱스, 시장 조사, 앱에 방문하는 고객의 유형까지 날 낚이 분석한 결과 나온 카피다.
야놀자의 초특가 캠페인은 올해에도 활발히 이어졌다. “광고 제작비를 아껴 고객에게 혜택을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만든 저비용 콘셉트의 초특가 캠페인 광고는 활발한 발상에 힘입어 10억 부의 누적조회수를 돌파했다. 3만~10만 원 정도의 비용으

로 유명 호텔과 레저시설을 즐기는 모습을 20초 분량에 담아 반전 재미를 선사하는 식이다. 그 결과 26회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동영상 디지털 부문 대상, 표현기법 특별상 등 3관왕을 받는 쾌거도 이뤘다.
야놀자가 광고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중심에는 김혜정(사진) 브랜드마케팅 실장이 있다. 그는 제일기획, IBM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야놀자에 입사해 활약하고 있다.
김 실장은 ‘초특가 캠페인’을 만든 배경에 대해 “타깃 고객이 누구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지 분석과 준비를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주 고객층의 유형 분석 결과 구매를 결정하는 가장

크레이션이란 여행지나 휴양 장소 화면을 앞에 두고 실제로 여행을 간 것처럼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일종의 놀이다. 김 실장은 “캠페인 타깃은 20세부터 35세로 맞추고 진행했지만, 최근 40·50대의 유튜브 사용 빈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유머코드를 젊은 세대만 좋아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생각보다 전 연령대에서 끌고루 즐겨주시는 편”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내년에는 ‘야놀자’라는 기업을 마케팅을 통해 균형 있게 보여주고 싶다”며 “올해 야놀자가 해외주소, 렌터카, 철도 사업 등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다양한 서비스 카테고리 사업을 추가 전개할 계획인 만큼 소비자에게 ‘야놀자’의 폭넓은 사업 영역을 어떻게 전해줄지 고민 중”이라고 향후 목표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비자 관점에서 야놀자 새 광고가 나오면 ‘이번에는 뭘 들고 나왔을까’ 궁금해지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우리 기자 we1228@

한화, 이웃돕기 성금 30억 기탁

한화그룹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에 기여하는 나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억 원 성금을 기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기탁된 성금은 장애인, 저소득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한화그룹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기탁은 2003년부터 16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3억 원의 성금 기탁을 시작으로 금액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2004년 10억 원, 2007년부터는 12년째 30억 원씩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한편, 한화그룹은 매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전국 90여 개 사업장, 50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한 달간 릴레이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한양, 강현재 전 한전 계통계획처장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장으로 영입

중견건설사 한양이강 현재 전 한국전력공사 계통계획처장을 신재생 에너지사업본부 본부장(부사장)으로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강현재 부사장은 1981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약 40여 년간 기술기획처 연구개발팀장, SG&신사업처 ESS사업팀장, 기후변화대응처 신재생사업실장, 계통계획처장 등을 거쳤다. 신재생에너지와 ESS, 전력설비 건설 및 운영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계통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강 부사장을 영입함으로써, 한양은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둔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은퇴대국 마친 이세돌…“아들 사랑해”



이세돌 9단이 21일 전남 신안군 엘도라도리조트에서 ‘바디프랜드 브레인마사지배 이세돌 vs 한돌’ 은퇴 대국 제3국을 마친 뒤 어머니 박양례 씨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1국에서 흑으로 2점을 먼저 놓는 접바둑으로 붙어 불계승한 뒤 2국에서 한돌과 호선으로 맞대결했으나 불계패한 이세돌은 치수가 다시 2점에 덤 7집반으로 조정된 이날 최종 3국에서 181수 만에 불계패했다. 대국 후 어머니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미소 지은 이세돌은 “한판 잘 즐기고 간다는 생각”이라며 “예전에는 ‘바둑이 인생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도 변함은 없지만, 이제는 바둑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퇴 후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말하기엔 아직 정리가 덜 됐다. 인생의 절반 정도는 바둑이 계속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어머니 박양례 씨는 대국 전 인터뷰에서 “그동안 세월이 참 길고도 짧은데 어느덧 아들이 은퇴할 때가 됐다”며 섭섭함을 표하고 “우리 아들 사랑하고, 앞으로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연합뉴스

구자열 LS 회장, 세르비아 국회의장과 투자 확대 논의

“권선 공장 생산능력 2배로…동유럽 최고 공장 만들 것”

LS는 최근 구자열 그룹 회장과 마야 고 이코비치 세르비아 국회의장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LS와 세르비아 간 사업 협력 및 투자 확대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

이번 방문은 한-세르비아 수교 30주년을 맞아 10월 문화상 국회의장의 세르비아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고이코비치 국회의장은 방한을 통해 문 국회의장과 세르비아에 진출한 한국의 주요 기업인들과의 접견을 가진 후 20일 출국했다.

이에 앞서 LS의 미국 전선회사 SPSX(슈페리어 에식스, Superior Essex)는

지난해 11월,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로부터 북쪽으로 약 90km 거리에 있는 즈레냐닌(Zrenjanin) 시에 1850만 유로(약 250억 원)를 투자해 토지 4만㎡, 건물 1만4000㎡ 규모의 권선(자동차 및 전자 부품 등에 쓰이는 구리선) 생산법인을 준공하면서 세르비아에 진출했다.

구 회장은 “SPSX 권선 공장은 세르비아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대통령님 이하 세르비아 정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빠른 시간 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님과 방한해 주신 국회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LS는 앞으로 세르비아에 추가 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두 배로 늘



림으로써 세르비아 공장을 동유럽 최고의 권선 공장으로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현재 ‘올해 모범 국선 대리인’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

나윤주·강은현·안혜림<왼쪽 사진부터> 변호사가 2019년 모범 국선 대리인으로 선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모범 국선 대리인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나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혐의로 기소 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받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 심판사건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면을 제출했다. 안 변호사는 청구인이 방실집임죄, 방실수색죄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자의적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끌어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현재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변



호사를 구하지 못해 기본권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 대리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무자력 기준을 월평균 수입 300만 원 미만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는 등 국선 대리인 선임 대상을 확대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게시판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순천인상’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019 자랑스러운 순천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민국과 순천의 가치와 위상을 남달리 크게 드높인 사람에게 수여되고 있으며, 인물의 도시로 유명한 순천에서는 이상이 특별히 명예롭게 평가받고 있다. 이전 이사장은 미국 뉴욕주재상무관,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한국디자인진흥원장, 한국디자인경영협회 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초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하현필 KIST 연구원, 과기훈장 응비장



선박엔진용 질소산화물 분해 촉매를 상용화한 하현필(왼쪽 사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이 20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포상 수여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응비장을 받았다. 간암 치료용 동맥화학색전술 제품을 개발한 김정민(오른쪽) 제약약품 전무이사는 철탐산업훈장을 받았다.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김규석 ◇경기지방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명로 ◇국장급 지원 근무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설립 준비단장 노길준

◆관세청 ◇부이사관 승진 △조사총괄과장 한창령

◆미래에셋대우 [팀장] ◇신임 △트레이딩시스템팀장 이준호 △파생세일즈팀장 원태준 △멀티솔루션1본부멀티솔루션2팀장 김정호 △멀티솔루션1본부멀티솔루션3팀장 조정익 △멀티솔루션2본부멀티솔루션3팀장 심용보 △디지털혁신추진팀장 은희일 △빅데이터팀장 이승묵 △고객센터2팀장 강현태 △매매팀장 신종연 △리스크정책팀장 조유남 △연금건설팀장

박영선 ◇전보 △멀티솔루션1본부멀티솔루션1팀장 주영열 △멀티솔루션2본부멀티솔루션1팀장 박영식 △멀티솔루션2본부멀티솔루션2팀장 홍순만 △디지털서비스팀장 전운호 △채널혁신팀장 변재광 △디지털영업추진팀장장지현 △디지털마케팅팀장 김홍록 △리서치지원팀장 정인철 [WM투자센터장/지점장] ◇신임 △용산WM지점장 이준호 △투자센터동동WM투자센터장 이소훈 △마곡WM지점장 신동현 △안산WM지점장 이승철 △진주WM지점장 유지영 △상무WM지점장 이혜란 ◇전보 △투자센터광화문WM투자센터장 이상호 △부천WM지점장 이관수 △송도WM지점장 최정식 △투자센터부산WM투자센터장 류향수 △투자센터창원WM투자센터장 김기용 △사하WM지점장 문종식 △울산WM지점장 이철수

부음

▲임종환 씨 별세, 임유택(서울바른마취통증의원 원장)·지나·선나·지인 씨 부친상, 김광수(농협금융지주 회장)·김현철(전 국민권익위원회상임위원)·송재환(경기도 안전관리 실장) 씨 장인상 = 2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23일 오전 8시 30분, 02-3410-3151

▲이정각 씨 별세, 이흥규(부국증권 상무)·영규 씨 부친상, 마수정(교화중학교 교사) 씨 시부상 = 20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3일 오전 9시, 02-2227-7580

▲문용선 씨 별세, 박종상(요식업)·판순·남숙·미숙(DGB 하이투자증권 강남WM센터 지점장)·지영 씨 모친상, 은지선 씨 시모상, 권영주(동명기술공단 부회장)

·황인태(주식회사 아키BY 부사장)·김선일(내일신문 기자)·김영진(도화엔지니어링 상무) 씨 장모상 = 21일, 장영군공설장례식장 1호실, 발인 23일 오전 9시, 055-533-8510

▲김시연 씨 별세, 임홍국(서울대병원 교수)·은정·소양 씨 모친상, 정완규(한국증권금융 사장)·신성식(부산지검 1차장) 씨 장모상, 최섯별(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씨 시모상 = 22일, 서울대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4일 7시 30분, 02-2072-2010

▲한옥순 씨 별세, 이정윤(전 전주지방법원 부이사관)·정일·상철(주식회사 경우 대표) 씨 모친상, 김정수(전 전북대학교 행정실장)·김택수(전북도민일보 회장)·오정규 씨 장모상 = 21일, 전주 뉴타운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24일 오전 9시, 010-8760-4244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가천대 교수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AI 국가전략, 민간이 시큰둥한 이유

정부가 내놓은 AI 국가전략은 제4차 산업혁명의 총집결이라는 점과 종전의 IT 강국에서 AI 강국으로 대전환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지난 17일 정부가 내놓은 AI(인공지능) 국가전략은 그간 발표된 어떤 전략보다도 포괄적이었다.

정책(전략)은 '타이밍'이다. 모든 것을 정리하는 연말에 국가의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는 일은 드물다.

수도 있었을 터다. AI 국가전략도 살고, 위원회도 살리는 멋진 한 수(手)가 아닐까 싶다.

정책(전략)은 '박자'다. 강약중강약이 있어야 한다. 수많은 정보를 백화점 식으로 나열해서는 높은 수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전략)은 '상징'이다. AI 국가전략은 국무회의에서 발표됐다.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을 세계 3위에 올려놓겠다는 마스터플랜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어울리지 않는다. 실천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AI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고 첫 지역으로 광주를 꼽았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5년간 무려 4000억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정책(전략)은 '관료 문화'이다. 관료들의 보고서는 무미건조하다. 어떤 때는 거만하게 보이기도 한다.

고 수미일관하다. 공정계획도 명확하다. 보고서의 신뢰를 담보하는 요소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무관, 과장, 국장, 실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무차관에게 매듭을 짓는 공저(共著)의 문화가 되는 것이다.

AI 국가전략은 그 자체가 한 국가 경제 발전 전략이란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실행력과 진정성을 담보로 계속해서 팔로업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



조에린의 벤처칼럼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경영학과 교수

브랜드 경쟁력 좌우하는 디자인 특허

벤처에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의 고유권, 즉 기술 특허는 경쟁력의 핵심이다. 벤처 진행에 있어 자사의 기술 특허권을 보호하고 타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려해야 할 부분이다. 하나 아직도 많은 한국 벤처에 디자인 특허의 중요성은 그리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는 듯하다.

필자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대부분의 소비자는 상품의 핵심 기술에 대해 별 이해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 상품의 외형이 만들어져 시장으로 나가면, 소비자는 디자인으로 상품을 기억하고 선택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핵심 기술이 달라도 디자인이 비슷하면 경쟁자를 베끼거나 따라했다는 인식을 벗어나기 힘들고, 이 때문에 브랜드의 기술뿐 아니라 정직성과 신뢰성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추월이 쉽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벤처로 시작하여 백년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는, 초기 개발단계부터 상품의 얼굴인 디자인의 고유성을 기술특허만큼이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디자인 특허는 모든 상품의 외장을 형성하는 요소와 이미지에 관한 고유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규범이다. 즉 외관, 인터페이스와 더불어 색, 촉감, 모양, 장식, 포장 등 상품과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모든 요소가 포함된다.

가능성이 있는 물건에 한한다.

디자인 특허의 어려운 점은 어디까지가 침해이고 아니냐는 판단이 단순한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지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기에 각 요소의 이슈보다는 '총체적 소비자 지각이 어떻게 같은지'...

이런 부분이 또한 벤처에 디자인 특허 이슈가 어려운 점이기도 하다. 많은 벤처들이 경쟁자의 외형을 베껴도 일부 객관적 디자인 요소를 바꾸면 이슈를 피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월턴 워커 명언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후퇴란 없다."

☆ 고사성어 / 임전무퇴(臨戰無退)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남이 없다'는 뜻. 신라 진평왕 때 원광국사(圓光國師)가 화랑 귀산(龜山)과 추항(籌項)이 일생을 두고 경계할 금언을 청하자, 세속오계(世俗五戒)를 주었다.

☆ 시사상식 / 슬로벌라이제이션 '슬로(slow: 느리다)'와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세계화)'의 합성어. '세계화 쇠퇴'를 뜻하는 용어다.

☆ 고운 우리말 / 응골다 물건이 조각나거나 축나지 아니하고 본디 그대로이다. 어떤 것이 가지고 있어야 할 내용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유머 / 장수 비결 공원 벤치에 앉아 명상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한 여인이 다가가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다.

☆ 여인이 나이를 묻자 할아버지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응 그게 말이야. 난 사실은 마흔여섯밖에 안 됐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된다는 소식이 나온 뒤 소상공인, 소비자, 라이더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자수첩 이지민 IT중소기업부/aaaa3469@



소상공인과 유니콘 사이, 중기부의 딜레마

발언을 했다. 마치 배달의민족을 대변하는 듯했지만, 스타트업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다.

문제는 여기서 비롯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스타업을 모두 담당하는 정부 부처다. 소상공인을 보호, 지원하는 동시에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 육성에도 관여한다.

유니콘 기업 탄생 소식을 중기부가 공식 발표하고, 내년까지 20개 유니콘 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중기부가 이 같은 딜레마를 어떻게 풀지가 관건이다. 소상공인과 배달 앱 운영사 간 갈등은 몇 년 전부터 계속됐다. 2년 전에도 중기부 산하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O2O 기업이 광고 경쟁을 부추겨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성명을 냈다. 당시 배달의민족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비리 혐의로 조직 내부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던 전력까지 거론하며 반박에 나섰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의 지적으로 중기부는 배달 앱을 비롯한 O2O 서비스와 소상공인의 거래 관행 개편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류현진에게 배우는 해법 ‘팀 배팅’

“이미 인류는 나무의 낮은 곳에 달려 있어 쉽게 딸 수 있는 과일(low hanging fruit)을 모두 먹어치웠다.”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의 타일러 코웬 교수(경제학)가 ‘거대한 침체’라는 저서에서 한 말이다. 지금은 높게 위치해 따기 힘든 과일(high hanging fruit)의 시대라는 얘기다. 그만큼 과일(혁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치열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덩치 큰 선진국들, 틈만 나면 잡아먹을 듯 달려드는 이웃 등 척박한 환경에서도 지난날 한국 경제는 꾸준히 덩치를 키워 왔다. 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과거와 차원이 달라 보인다. 저성장·저물가·고령화 등 당기에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들이 갈 길 바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미 이주열 한은 총재는 공개석상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2% 내외로 예상된다”며 수정 전망했다. 이 총재는 “당초 예상보다 수출과 투자 회복이 지연됐고, 국내 소비 증가세가 둔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를 넘긴다 해도 내년은 더 걱정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내년 전망을 1.9%에서 1.6%로 낮췄다. LG경제연구원은 1.8%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흥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정하고 있다. 그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대사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높아지기에

데스크칼럼

김문호
자본시장2부장



는 여건상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령화가 몰고 온 ‘연령지진(age quake)’은 또 어떤가. 고령화 속도 세계 챔피언이었던 일본을 가볍게 제칠 정도로 한국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이다. 인구구조가 경제에 보탬이 되는 인구보너스기는 이미 2012년에 끝났다. LG경제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2020년부터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쯤 되면 소비도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구절벽’이란 말을 일반화시킨 미래학자 해리 덴트는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던 1971년생이 인생에서 소비 정점으로 분류되는 만 46세가 되는 2017년을 그 기점으로 봤다. 덴트는 일본의 경우 인구절벽으로 1989~1996년 소비정점을 지나면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내수 시장이 위축됐다고 주장한다.

저혈압(저물가)에서 오는 디플레이션은 또 어떤가.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계량경제학의 창시자)는 1933년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개념을 통해 장기 경기 사이클에서 부채와 물가를 가장 경계해야 할 변수로 꼽았다. ‘호황 국면이 끝난 후 부채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자산 가격 하락과 유동성 위축 등이 실물 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으로 퍼진다는 것. 이런 디플레이션에서 실질 채무는 불어나고, 채무자는 소비와 저축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게 부채 디플레이션의 요지다.

길을 잃고 망망대해에서 헤매는 대한민국호가 살아남 방법은 없을까. 최고의 한해를 보낸 류현진(32·LA 다저스) 투수에게 어쩌면 작은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그는 올해 정규리그 29경기 등판해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이라는 좋은 성적을 냈다. 놀라운 점은 류현진 선수의 타격 실력이다. 아마 경기 중계를 본 팬들이라면 공감할 거로 생각한다. 51타수 8안타(0.157)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1홈런 3타점이 있다. 상대 투수와 평소 대결 과정을 보면서 눈에 띄는 점이 한 가지 있다. 변화구는 철저하게 끝까지 기다리고, 직구에만 배트가 나가는 모습이다. 직구를 공략해 몇 번의 파울을 내더니 결국 안타를 쳐내곤 한다. 류현진 선수는 왜 철저하게 직구만 노리고 있었을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그는 LA다저스의 제 1선발이다. 팀 내 누구도 류현진 선수에게 타자로서의 활약을 기대할 리 없다. 병살타만 안 쳐주면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다.

정부의 정책이 매년 홈런을 칠 수는 없다. 지금은 감세나 빚장(규제)을 풀어 기업들이 잘하는 부문은 더 잘하게 하고, 경쟁력 없는 좀비 기업이나 사양 사업은 과감하게 퇴출해야 할 때다. 큰 것 한 방을 노리다 병살을 당하기보다는 철저하게 팀 배팅을 할 때란 얘기다. kmh@

사설

보유세 부담 급증, 거래세 내려야 한다

정부가 집값 잡기를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집중적으로 올리고 있다. ‘12·16 대책’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통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중부세 부담 상향 상향,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중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대폭 오른다.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도 마찬가지다.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축소되고 비교세 요건이 강화되며, 다주택자 양도세도 증가된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를 겨냥한 것이지만, 서울의 경우 중산층 1주택자의 세금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재산세만 해도 서울에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등은 20~30% 오를 전망이다. 급격한 세금 인상에 ‘징벌적 과세’라는 주택 소유자들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많다.

보유세 증가가 집값을 견제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는 있다. 시세에 근접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향도 맞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하다.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도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 작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7%로 OECD 회원국 평균 1.0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곳은 캐나다로 3.13%였고, 영국 3.09%, 미국 2.69%, 일본 1.89% 등이었다. 정부가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논거다.

그러나 거래세의 경우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 외국은 양도세나 취득세 등 거래세가 거의 없거나 세율이 매우 낮은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OECD 통계에서 한국은 작년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이 2.01%로, 두 번째로 높은 벨기에의 1.09%에 비해 2배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증권거래세를 제외하고 산출한 2015년 기준 부동산 거래세 비중도 1.57%로 OECD 평균(0.4%)보다 현저히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거래세를 그대로 두고 보유세만 올리면 실수요자들의 거래까지 막아 시장 냉각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소지가 높다. 특히 사고팔 때마다 반복적으로 내는 거래세는 부동산 가격에 전가돼 지속적인 가격상승의 부작용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오히려 실수요자나 세입자의 부담을 더 키우고, 비강남이나 지방 주택시장을 위축시켜 집값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어느 한쪽만 징벌하겠다는 차별적 과세로는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없고 타당성도 떨어진다. 조세저항도 필연이다. 보유세는 거래세와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낮은 보유세를 올리면 높은 세율의 거래세는 낮춰 과세균형을 맞춰야 한다.

류현진의 뉴스 카트



유통바이오부 부장대우

또 하나의 독과점 기업 탄생이 예고됐다.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의 유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지난해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7%, 요기요가 33.5%, 배달통 10.8%에 달한다. 이번 인수 합병으로 시장점유율이 90%가 넘는 ‘배달공룡’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커지는 덩치만큼이나 시장의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혹자는 “한국 배달의 주도권이 독일로 넘어갔다”고 안타까워하고, 또 다른 이는 “독과점으로 인한 식당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업계는 술렁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묵인할 분위기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9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들의 인수 합병에 대해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내걸며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다. 그는 “기업결합 심사 시 공정위는 혁신을 촉진하기도, 가로막기도 한다”고 운을 뗀 뒤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과 독과점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을 균형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독과점이라는 프레임은 씌우지 않겠다는 설명인 셈이다.

가맹점주의 갑, 배달앱

면을 균형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독과점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않겠다는 설명인 셈이다.

배달앱 시장은 의외로 진입장벽이 높다. 소비자들이 익숙한 앱을 통해 반복 구매를 하는 데다 론칭 초기 라이더와 입점 브랜드 확보도 용이하지 않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지자 자체 배달앱을 준비하다가 중단하기도 했다. ‘로켓배송’으로 소비 패러다임을 바꾼 ‘유통가메기’ 쿠팡이 ‘쿠팡이츠’를 론칭하며 야심차게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반년 동안 점유율 1%에 만족해야 하는 시장이 바로 배달앱 시장이다. 유통 대기업들마저 긴장하게 한 쿠팡도 기존 배달앱의 철용성에 작은 틈새조차 내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이다.

조위원장의 발언으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인수 합병이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도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배달앱 시장을 기준으로 할 경우 90% 이상을 독식하게 되지만 기준을 바꿔 오픈마켓으로 범위를 넓히면 독과점에서 자유로

워질 수 있어서다.

이들의 합병 소식이 발표되자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식당들에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 가맹본부들은 배달앱을 ‘상권 파괴자’로 지목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본부에서 각 가맹점에 영업상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배달앱으로 고객이 주문할 때 이 상권은 무의미하다. 배달앱에서 A치킨으로 검색했을 때 광고비용을 지불한 B가맹점이 가장 상단에 검색된다. 이 경우 B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상권을 벗어나 C·D가맹점의 영업상권까지 배달하게 된다. 결국 광고를 하지 않으면 검색순위에서 밀리게 돼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의 경쟁 체제가 형성돼 있어 과도한 광고비나 수수료에 대한 양사 간의 견제가 가능했지만 이들의 합병으로 사실상 광고비와 수수료 인상에 브레이크 기능이 사라졌다.

배달 매장 점주들은 벌써부터 내년이 두렵다. 임대료는 또 오를 것이고 식자재 가격도 해마다 인상되는 데다 배달공룡의 등장에 따른 추가 부담까지 우려해서다. 지금 이들에게 ‘갑’은 가맹본부가 아니라 배달앱이다. yhh1209@

가장 우리말 한 토막

지난밤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슈퍼에 가려고 주차장을 지날 때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고 있었는데, 물건을 사고 돌아올 때까지도 다투고 있었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에 주차해야 한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저녁이면 이중 삼중 주차는 비밀비재하다. 이날은 이중 주차한 차주가 연락이 되지 않아 차를 급하게 빼려던 사람이 잔뜩 화가 나 있었던 것이다. 뒤늦게 이중 주차한 이가 달려와 차를 빼려다 서로의 상황을 얘기하며 다투고 있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의견이 달라 이러쿵 저러쿵하면서 다투는 일은 승강이일가, 실랑이일가.

승강이(昇降이)는 한자어 ‘오를 승(昇), 내릴 강(降)’에 접사 ‘-이’가 결합한 말이다. 한자어에서 의미하듯 서로 다투다 보면 목소리가 오르내리게 되고 혈압이 오르내릴 수 있다. 승강이는 ‘서로 자기주장을 고집하며 옥신각신하는 일’을 뜻한다. ‘승강’이라고도 한다. 반면 실랑

승강이와 실랑이

이는 ‘이러니저러니, 옳으니 그르니 하며 남을 못살게 굴거나 괴롭히는 일’을 의미한다. 이렇듯 승강이와 실랑이는 의미상 차이가 있다. 그런데 대중이 일상생활에서 두 단어를 구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오랫동안 쓰다 보니 실랑이에 본디 가지고 있던 뜻 외에 다른 의미가 더해졌다. 국립국어원에서 실랑이의 사전적 의미에 승강이의 뜻도 덧붙인 것이다. 따라서 서로 자기주장을 고집하며 다투는 경우에 ‘승강이’, ‘실랑이’ 둘 다 쓸 수 있다. 다만 남을 못살게 굴거나 괴롭히는 것을 뜻할 때는 실랑이만 쓸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모든 일이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때론 승강이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실랑이를 당해 곤욕을 치를 수도 있을 것이다. 노여움이나 울화에 복받쳐 성급하게 행동으로 옮기면 후회할 수 있다.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보고, 시간의 여유를 갖자.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해결점을 찾게 될 것이다.

신미라 편집부 교열팀 차장 kleinkind@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그릴, 감각적 변화의 시작
GRANDEUR 출시



bluehands
 차량관리 서비스는 blue hands가 책임집니다
 회원혜택: 블루핸즈케어서비스/2급충동/블루모인트/전인서비스

■ 구입 문의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원콜 서비스 080-6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그랜저 가솔린 2.5(자동 8단, 17인치 타이어): 복합: 11.9km/ℓ (도심: 10.3km/ℓ / 고속도로: 14.6km/ℓ) I CO₂ 배출량: 142g/km I 공차중량: 1,575kg I 8단 자동변속기(3등급) ▶ 그랜저 가솔린 2.5(자동 8단, 18인치 타이어): 복합: 11.6km/ℓ (도심: 10.1km/ℓ / 고속도로: 14.0km/ℓ) I CO₂ 배출량: 146g/km I 공차중량: 1,590kg I 8단 자동변속기(3등급) ▶ 그랜저 가솔린 2.5(자동 6단, 19인치 타이어): 복합: 11.1km/ℓ (도심: 9.7km/ℓ / 고속도로: 13.4km/ℓ) I CO₂ 배출량: 153g/km I 공차중량: 1,625kg I 8단 자동변속기(4등급) ▶ 그랜저 가솔린 3.3(자동 8단, 18인치 타이어): 복합: 9.7km/ℓ (도심: 8.3km/ℓ / 고속도로: 12.0km/ℓ) I CO₂ 배출량: 178g/km I 공차중량: 1,660kg I 8단 자동변속기(4등급) ▶ 그랜저 가솔린 3.3(자동 6단, 19인치 타이어): 복합: 9.6km/ℓ (도심: 8.3km/ℓ / 고속도로: 11.7km/ℓ) I CO₂ 배출량: 179g/km I 공차중량: 1,670kg I 8단 자동변속기(4등급) ▶ 그랜저 LPI 3.0(자동 6단, 17인치 타이어): 복합: 7.5km/ℓ (도심: 6.4km/ℓ / 고속도로: 9.3km/ℓ) I CO₂ 배출량: 177g/km I 공차중량: 1,640kg I 6단 자동변속기(5등급) ▶ 그랜저 LPI 3.0(자동 6단, 18인치 타이어): 복합: 7.4km/ℓ (도심: 6.3km/ℓ / 고속도로: 9.3km/ℓ) I CO₂ 배출량: 180g/km I 공차중량: 1,665kg I 6단 자동변속기(5등급) ▶ 그랜저 LPI 3.0(자동 6단, 19인치 타이어): 복합: 7.3km/ℓ (도심: 6.3km/ℓ / 고속도로: 9.0km/ℓ) I CO₂ 배출량: 182g/km I 공차중량: 1,700kg I 6단 자동변속기(5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속주행을 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쁜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